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임 경 춘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혈액투석실 간호사의
간호업무수행능력과 회복탄력성이
소진에 미치는 영향

2023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김 예 지

혈액투석실 간호사의
간호업무수행능력과 회복탄력성이
소진에 미치는 영향

임경춘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3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김 예 지


인 준 서

김예지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23년 5월

심사위원장 양 승 애 

심사위원 장 신 주 

심사위원 임 경 춘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감사의 글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 슬픔의 날 참고 견디면 기쁨의 날이 오리니’ 알렉산드로 푸시킨의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시 구절이 생각나는 지금이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2021년 대학원 입학과 함께 시간이 흘러 2023년 졸업을 앞둔 지금까지의 시간을 돌이켜보면 봄날의 꿈처럼 느껴집니다.

우선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에도 늘 아낌없는 격려와 지지를 보내주시고 부족한 것이 많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밤, 낮으로 논문 지도해 주신 지도교수님인 임경춘 교수님께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도 논문 심사를 위해 귀한 시간을 내주신 양승애 교수님과 장선주 교수님, 연구도구 승인에 흔쾌히 허락해주신 서정에 선생님과 강종수 교수님, 통계에 도움을 주신 서수경 교수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온라인 설문지 수집을 위해 도움을 주신 병원투석간호사회 서울강북 분회장님과 홍보이사님께도 감사의 인사 전합니다. 학업과 일을 병행하면서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근무표를 배려해주신 인공신장실 수간호사님 그리고 동료 선생님들과 대학원 동기생 선생님들, 친구들에게도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대학원 다닌다고 바빠서 많이 찾아뵙지 못했지만 그래도 이해해주고 수고한다고 격려해주신 사랑하는 부모님과 오빠, 시아버님, 형님에게 감사의 인사 전합니다. 작년에 작고하신 어머님께도 늘 그립고 보고 싶은 마음을 전합니다.

1학기부터 4학기까지 학기 중에는 수업과 공부하느라 바쁘다는 핑계로 5학기에는 졸업논문 쓴다고 예민해져 있었던 저에게 언제나 한결같은 보살핌과 2년 반 동안 든든한 버팀목으로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에 인생의 나침반 역할로 도움을 준 사랑하는 남편에게 가장 고마운 마음을 담아 보냅니다. 그리고 한 달 후 세상에 태어날 사랑하는 토끼이를 위해 태교에도 신경 쓰지 못한 부분이 마음에 걸리지만 그래도 건강하게 만나기만을 바라면서 미안한 마음을 전합니다.

보통의 하루를 살아가는 지금이 가장 행복했던 시절임을 잊지 않고 앞으로도 살아있음에 감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에게 진심을 담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2023년 7월

김예지 올림

논문개요

본 연구는 혈액투석실 간호사의 간호업무수행능력과 회복탄력성이 소진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자료수집 기간은 2022년 12월 2일부터 2023년 4월 26일까지이며, 연구 대상은 국내 의료기관 혈액투석실에서 근무 중인 혈액투석실 간호사이었다. 혈액투석실 근무경력이 최소 3개월 이상인 일반 간호사와 책임 간호사 144명을 편의 표집 추출하였다. 자료는 자가 보고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온라인 설문 조사 방법으로 수집되었으며, 대상자 선정 제외 기준에 부합한 10부와 불충분한 응답을 한 설문지 1부를 제외하였고 총 133부를 최종 분석하였다.

연구도구는 혈액투석실 간호사의 간호업무수행능력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이은미(2008)가 간호사의 인사고과 도구 개발 연구에서 혈액투석실 간호사의 업무수행 평가도구로 개발한 것을 서정애(2015)가 수정 및 보완한 도구로 사용하였고, 회복탄력성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Connor와 Davidson(2003)이 개발한 Connor-Davidson Resilience Scale (CD-RISC)을 번역한 한국어판 코너-데이비드슨 회복력 척도(K-CD-RISC)를 사용하였으며, 소진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Kristensen 등(2005)이 개발한 코펜하겐 소진 척도(Copenhagen Burnout Inventory: CBI)를 강종수(2022)가 한국어판 CBI 척도로 개발한 것을 사용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26.0 프로그램 이용하여 기술 통계, t-test, ANOVA, Scheffé 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multiple linear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평균 연령은 37.67 ± 8.15 세로 30~39세 62명(46.6%), 종교는 무교 82명(61.7%), 성별은 여성 131명(98.5%), 결혼상태는 기혼 79명(59.4%), 학력은 학사 93명(69.9%)이 가장 많았다. 임상경력은 평균 12.66 ± 7.88 년으로 15년 이상이 41명(30.8%)으로 가장 많았다. 투석실 근무경력은 평균 6.03 ± 4.99 년으로 2년 미만 37명(27.8%), 직위는 일반 간호사가 116명(87.2%), 교대 근무 형태는 2교대 근무가 67명(50.4%)이며 근무 병원 형태는 종합병원이 71명(53.4%)으로 가장 많았다. 동정맥루 천자 시 부담감은 평균 5.43 ± 2.09 점으로 나타났다.

2. 연구 대상자의 간호업무수행능력은 총점 5점 만점에 평균 3.79 ± 0.47 점, 회복탄력성은 총점 4점 만점에 평균 2.46 ± 0.57 점, 소진 정도는 총점 5점 만점에 평균 3.02 ± 0.60 점이었다.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업무수행능력의 경우 연령($F=4.63$, $p=.004$), 임상경력($F=2.79$, $p=.029$), 직위($F=4.25$, $p=.041$), 근무 병원 형태($F=4.89$, $p=.003$)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회복탄력성의 경우 성별($F=7.26$, $p=.008$), 결혼상태($F=5.17$, $p=.025$)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소진의 경우 학력($F=3.90$, $p=.023$), 임상경력($F=2.76$, $p=.031$), 투석실 근무경력($F=2.80$, $p=.029$), 교대 근무 형태($F=7.58$, $p=.001$), 근무 병원 형태($F=4.27$, $p=.007$)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4. 간호업무수행능력은 회복탄력성과 양의 상관관계($r=.52$, $p<.001$), 회복탄력성은 소진과 음의 상관관계($r=-.37$, $p<.001$)를 보였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하게 나타났다.

5. 소진의 영향 요인에 대한 다중회귀분석결과, 통제변수가 종속변수를 설명하는 R^2 은 .388로 38.8%의 설명력을 보였다. 회복탄력성이 소진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beta=-.25, p=.011$), 회복탄력성이 높을수록 소진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 부분 중 학력의 경우 석사 이상($\beta=.20, p=.047$), 교대 근무 형태의 경우 상근직 근무($\beta=.34, p<.001$), 근무 병원 형태의 경우 상급종합병원($\beta=.34, p<.001$)은 소진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 파악되었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

본 연구는 혈액투석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간호업무수행능력과 회복탄력성이 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혈액투석실 간호사의 간호업무수행능력은 회복탄력성과 양의 상관관계, 회복탄력성은 소진과 음의 상관관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결론적으로 회복탄력성이 소진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이는 회복탄력성이 높을수록 소진 수준이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혈액투석 환자에게 수준 높은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 혈액투석실 간호사의 소진을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간호업무수행능력과 회복탄력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궁극적으로 간호사의 소진을 감소시키는 방안 마련의 근거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주요어 : 혈액투석실 간호사, 간호업무수행능력, 회복탄력성, 소진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4
3. 용어의 정의	5
II. 문헌고찰	7
1. 혈액투석실 간호사의 소진	7
2. 혈액투석실 간호사의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9
1) 간호업무수행능력	9
2) 회복탄력성	11
III. 연구 방법	13
1. 연구 설계	13
2. 연구 대상	13
3. 연구 도구	15
4. 자료수집 절차 및 방법	18
5. 윤리적 고려	19
6. 자료 분석 방법	20
IV. 연구 결과	21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21
2. 대상자의 간호업무수행능력, 회복탄력성, 소진	23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업무수행능력, 회복탄력성, 소진	29

4. 대상자의 간호업무수행능력, 회복탄력성, 소진과의 상관관계	32
5.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35
V. 논의	37
VI. 결론 및 제언	47
1. 결론	47
2. 제언	48
참고문헌	49
ABSTRACT	58
부 록	61

표 목 차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22
Table 2. Level of Performance, Resilience and Burnout	23
Table 3. Performance level by item	25
Table 4. Burnout level by item	28
Table 5. Differences in Performance, Resilience and Burnout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31
Table 6. Correlation among Performance, Resilience, and Burnout	32
Table 7. Correlation among Performance, Resilience of factors and Burnout of factors	34
Table 8. The Regression Analysis of factors influence on Burnout	36

부 록 차 례

부록 1. 설명문 및 동의서	61
부록 2. 설문지	65
부록 3. 도구 사용 승인 자료	70
부록 4. IRB 승인 자료	72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대한신장학회에서 2021년에 발표한 2020년 KORDS (Korean Renal Data System) 신대체요법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말기신부전(End Stage Renal Disease, ESRD)의 총 유병률은 145,006명이다. 이 중 혈액투석 환자는 117,398명(81.0%), 복막투석 환자는 5,724명(3.9%), 신장이식 환자는 21,884명(15.1%)이며, 2020년 말기신부전의 원인 질환은 당뇨병 49.8%, 고혈압 20.5%, 사구체신염 8.5%, 낭성 신질환 1.9% 순이었다.

최근 만성 신장 질환으로 혈액투석 치료를 받는 환자의 수가 늘면서 혈액투석실 간호사 수요인력 또한 증가하고 있으며, 환자의 식이요법과 혈관관리 등의 자가관리 이행을 돕고 투석기계 및 정수관리 등 전문적 간호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혈액투석실 간호사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김영미, 전인숙, 박영미, 201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하여 전국의 모든 혈액투석 시행기관은 혈액투석 적정성 평가를 받게 되는데 구조 지표 항목으로 2년 이상 혈액투석 경력을 가진 간호사 비율도 포함된다(진동찬, 신영신, 김묘정, 강미연, 원은미, 양기화, 2018). 혈액투석실 간호사는 활력징후 등의 기본간호 및 혈액투석기계 조작, 관찰, 투석 중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관리 등의 투석 간호업무를 수행한다(서미란, 정경희, 2018). 또한, 혈액투석 치료를 받는 환자 간호 시 신체적, 정서적인 부분까지 고려한 양질의 간호를 제공해야 하므로 혈액투석실 간호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김민선 등, 2015). 하지만 만성 신장 질환 환자들의 자기중심적인 태도, 질병의 만성적 경과와 사망으로 인한 무력감 등은 혈액투석실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류은진, 최소은, 2017).

간호업무수행능력이란 간호사가 전문적인 간호행위를 환자와의 관계 속에서 상호작용하며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김미란, 2008). 간호사가 간호업무수행 중 과다하게 소진되면 상황 조절능력이 저하되고 직무만족도는 감소하며 이는 환자에게 제공되는 간호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것을 의미하고, 고객이 지각하는 간호서비스 만족도가 낮아짐에 따라 병원조직의 경쟁력과 효율성 또한 저하될 수 있다(강정숙, 임지영, 2015). 적정수준의 직무스트레스는 간호업무수행을 높여 주지만 지속적인 과도한 직무스트레스는 간호사 소진으로 이어져 간호업무수행을 저하시킨다(지수빈, 2016).

회복탄력성이란 역경에 긍정적으로 적응하는 개인의 능력을 의미하며(Jackson et al., 2007), 본 연구에서는 ‘resilience’를 회복탄력성이라는 용어로 사용한다. 국내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는 ‘resilience’를 극복력(김선화, 박성희, 2016; 임정민, 2016; 홍인숙, 2019; 황혜남, 이윤신, 2021), 회복력(박점미, 신나연, 2019; 이정숙, 2019), 회복탄력성(문인오, 박숙경, 정정미, 2013; 송진숙, 허수연, 2018; 백윤미, 김숙영, 2020), 자아탄력성(김수현, 박희옥, 2020; 이은영, 강현숙, 2020) 등의 용어로 사용하였다. 임상간호사의 회복탄력성과 소진과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이 높을수록 소진 정도가 낮으며(문인오 등, 2013; 강정숙, 임지영, 2015), 정해진 시간 내 업무의 양이 많으면 누구든 탈진상태가 될 수 있지만 업무 강도가 높더라도 회복탄력성이 높은 사람은 상대적으로 회복탄력성이 낮은 사람보다 소진을 덜 경험한다(백윤미, 2018).

소진이란 장시간 감정적으로 힘든 근무로 인해 발생한 신체적, 정서적, 정신적 탈진상태를 의미한다(Pines & Aronson, 1981). 소진은 간호사 개인적 차원의 문제를 벗어나 숙련된 간호사의 이직으로 경제적 손실과 함께 업무량 증대와 숙련도 저하로 인한 간호의 질적 하락 문제가 발생하게 되므로 간호실무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여겨진다(윤금숙, 김숙영, 2010). 응급실 간호

사를 대상으로 한 국내 선행연구에 따르면 업무수행능력이 미흡할수록 소진 정도가 증가하고 전문직 정체성은 낮으며(김정희, 안혜영, 엄미란, 이미영, 2010), 혈액투석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근무환경과 직무만족, 임파워먼트 수준이 높을수록 간호업무수행은 높았다(서정애, 2015). 혈액투석실 간호사들의 언어폭력 경험, 직무스트레스, 소진은 모두 이직의도와 양의 상관관계가 있고 이직의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소진과 직무스트레스로 나타났다(정선애, 박경연, 2016). 또한, 코로나 19 감염병 상황에서 감염관리 직무스트레스가 높고 사회적 지지가 낮을수록 소진 정도는 높았으며, 혈액투석실 간호사의 감염관리 직무스트레스, 사회적지지가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하정인, 2023).

지금까지 국내 선행연구에서 혈액투석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직무스트레스, 사회적지지가 감성지능과 정서적 소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김다미, 2017), 혈액투석실 간호근무환경이 간호사 업무수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서정애, 2015), 혈액투석실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 극복력, 전문직 자아개념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홍인숙, 2019)가 시행되었다. 혈액투석실 간호사의 간호업무수행능력과 회복탄력성이 소진의 영향요인으로 파악된 국내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혈액투석실 간호사의 간호업무수행능력과 회복탄력성이 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혈액투석실 간호사의 간호업무수행능력과 회복탄력성을 높여 소진을 감소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혈액투석실 간호사의 간호업무수행능력과 회복탄력성이 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함이며 이를 위한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혈액투석실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 간호업무수행능력, 회복탄력성, 소진의 정도를 파악한다.
- 2) 혈액투석실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업무수행능력, 회복탄력성, 소진의 차이를 파악한다.
- 3) 혈액투석실 간호사의 간호업무수행능력, 회복탄력성, 소진 간의 관계를 파악한다.
- 4) 혈액투석실 간호사의 간호업무수행능력과 회복탄력성이 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3. 용어의 정의

1) 간호업무수행능력

(1) 이론적 정의

간호업무수행능력이란 간호사가 전문적인 간호행위를 환자와의 관계 속에서 상호작용하며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김미란, 2008).

(2)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이은미(2008)가 간호사의 인사고과 도구 개발 연구에서 혈액투석실 간호사의 업무수행 평가도구로 개발한 것을 서정애(2015)가 수정 및 보완한 도구로 측정한 점수를 말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업무수행능력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2) 회복탄력성

(1) 이론적 정의

회복탄력성은 역경에 긍정적으로 적응하는 개인의 능력을 의미한다(Jackson et al., 2007).

(2)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Connor와 Davidson (2003)이 개발한 Connor-Davidson Resilience Scale (CD-RISC)을 번역한 한국어판 코너-데이비드슨 회복력 척도(K-CD-RISC)로 측정한 점수를 말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회복탄력성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3) 소진

(1) 이론적 정의

소진은 일반적으로 사람들과 장시간 감정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근무하며 발생한 신체적, 정서적, 정신적 탈진상태를 의미한다(Pines & Aronson, 1981).

(2)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Kristensen 등(2005)이 개발한 코펜하겐 소진 척도(Copenhagen Burnout Inventory: CBI)를 강종수(2022)가 한국어판 CBI 척도로 개발하여 측정한 점수를 말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소진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II. 문헌고찰

1. 혈액투석실 간호사의 소진

소진이란 사람들과 장시간 감정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근무하며 발생한 신체적, 정서적, 정신적 탈진상태를 의미한다(Pines & Aronson, 1981). 특히 간호사는 간호업무 특성상 다른 직업인보다 일방적인 건강 요구를 가진 다양한 사람들과 끊임없이 접촉해야 하는 환경에서 근무하므로 소진 발생에 쉽게 노출되어 있으며, 이는 간호사의 주요 건강문제이다(김영옥, 2002). 소진을 경험한 간호사는 자신의 건강뿐 아니라 동료에게도 영향을 주며(김희경 등, 2005), 24시간 환자 곁에서 간호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의 소진은 환자안전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간호사 소진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박소정, 강지연, 이영옥, 2012). 간호사는 직무스트레스가 많은 근무환경에서 소진을 쉽게 경험하며, 이러한 소진 경험은 숙련된 간호사의 이직 의도를 높여 이직률과 환자안전 및 간호의 질 저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중요하게 인식된다(전경자, 변성원, 2009; 문인오 등, 2013). 이에 소진 발생을 줄이고 예방하기 위해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요인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변대식, 염영희, 2009).

국내 선행연구에서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혈액투석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김다미(2017)의 연구 결과에서 직무스트레스와 정서적 소진은 중간 정도 양의 상관관계가 있으며, 인공신장실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소진은 직무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소진 정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허영주, 2008). 다른 요인으로 인공신장실 간호사의 직무만족도와 소진은 직무만족도가 높을수록 소진 경험 정도는 낮다고 하였다(송명숙, 강경자, 이명화, 1998). 임상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회복탄력성과 소진의 정도는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 회복탄력성이 높을수록 소진 정도가 낮음을 알 수 있었다(문인오 등, 2013). 수술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회복탄력성이 높을수록 소진 정도가 낮으며 회복탄력성은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이은영, 2021). 간호사의 경우 다른 전문분야에 비해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며 근무하고 있어 숙련된 간호사의 소진 경험을 줄여 주는 것은 이직과 퇴직을 예방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김부남, 오현숙, 박용숙, 2011).

혈액투석 간호란 급·만성 신부전 환자와 가족들이 필요로 하는 건강과 관련된 문제를 사정하고 분석하여 진단하는 행위로 간호계획을 세우고 간호중재를 제공하는 혈액투석실 간호사의 모든 간호행위를 말한다(김민선 등, 2015). 혈액투석은 신대체요법 중 하나로 신장이식 또는 사망하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혈액투석기를 통해 1회 3~4시간, 주 2~3회의 치료를 받게 되는 만성질환이다(홍인숙, 2022). 혈액투석실은 간호사의 간호가 의사의 진료보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혈액투석실 간호사는 기본간호 및 투석과 관련된 간호를 제공하며 혈액투석 치료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합병증을 관리하기 위한 간호 활동을 수행하는 특수 부서이다(서미란, 정경희, 2018). 구체적으로 혈액투석실 간호사는 투석 전 간호로 혈액투석 기계 준비와 동정맥루 감염 여부를 관찰하고 투석 중 발생하는 응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혈액투석의 전 과정을 지켜보는 것은 물론 환자의 자가간호를 돕기 위해 식이 및 투약 교육과 심리적 지지 등 포괄적인 돌봄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한다(홍인숙, 2022). 이처럼 혈액투석실 간호사는 일반 병동 간호사보다 다양한 업무와 광범위하고 복합적인 간호역할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서정애, 이병숙, 2016). 혈액투석실은 혈액투석실 간호사의 역량과 역할이 다른 일반부서에 비해 더욱 중요하게 작용하는 부서이므로 혈액투석실 간호사의 소진을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에 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2. 혈액투석실 간호사의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간호업무수행능력

간호업무수행능력이란 간호사가 전문적인 간호행위를 환자에게 제공할 때 환자와의 관계 속에서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는 행위이며(김미란, 2008), 업무수행능력은 특정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최순성, 2021). 구체적으로 간호업무수행이란 간호대상자의 건강회복, 질병예방, 건강증진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갖추도록 간호사가 제공하는 행위로 간호, 교육, 감독 등을 의미한다(신상춘, 이병숙, 2001). 국내 의료법 제2조 5항에 의하면 간호사는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

오늘날 질병이 다양해지고 중증 환자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환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급변하는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진 간호사의 숙련된 간호업무수행이 요구된다(성미향, 이미영, 2017). 간호사의 업무수행능력은 병원조직 성과로 직결되기 때문에 업무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규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김명숙, 2013).

특히 혈액투석실 간호사는 업무 특성상 생의 과정을 역행하는 만성 신질환 대상자들을 위해 전인적 돌봄을 제공하는 간호업무를 담당한다(김문실 등, 2000). 혈액투석 환자들은 매회 4~5시간씩 주 2~3회 반복적인 치료로 인해 정신적, 사회적, 경제적 부담감을 느끼며 주기적으로 밀접한 접촉을 하는 의료진에게 대부분 의존적으로 변하게 된다(박봉희, 2005). 혈액투석 환자는 간호사의 신속하고 숙련된 처치와 투약, 능숙한 주사 기술, 맞춤식 교육, 편안한 환경 제공, 따뜻한 지지와 감성적 돌봄을 좋은 간호로 인식한다(염은

이, 김미영, 2014). 이처럼 혈액투석실에는 투석기계 등 장비에 대한 기술적 숙련도가 높고 투석 간호와 관련된 전문적인 간호지식을 갖춘(박의정, 김영혜, 2013), 간호업무수행능력이 높은 간호사가 필요하다.

간호사의 간호업무수행능력에 영향을 주는 변수에 대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간호사의 비판적사고성향 및 학습 관련 자기주도성(박안나, 정경희, 김원경, 2016), 간호정보역량 및 문제해결능력(곽소영, 김윤수, 이경주, 김미영, 2017), 응급실 간호사의 역할갈등 및 자기효능감과 회복탄력성(조미정, 성미혜, 2018) 등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간호사의 직무만족, 직무몰입이 높을수록 간호업무수행능력이 높으며(성미향, 이미영, 2017), 직무만족도가 높을수록 업무수행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미영, 이해경, 2019). 응급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회복탄력성과 간호업무수행능력은 양의 상관관계로 나타났는데, 회복탄력성이 높을수록 간호업무수행능력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김민성, 2016). 혈액투석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간호근무환경이 좋을수록, 직무만족도 및 임과워먼트 수준이 높을수록 간호업무수행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서정애, 2015). 그리고 간호업무수행능력은 연령, 임상경력 및 직위가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간호사의 연령과 경력이 많을수록 다양한 경험을 통해 지식과 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김정희 등, 2010; 박안나 등, 2016). 한편 임상간호사의 소진 정도가 높을수록 간호업무수행능력이 낮은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지수빈, 2016), 응급실 간호사의 소진 정도가 높을수록 간호업무수행능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정희 등, 2010).

이에 혈액투석 환자에게 수준 높은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서 혈액투석실 간호사의 간호업무수행능력을 파악하고 소진과의 연관성을 확인하여 간호업무수행능력을 높이고 소진을 감소시키는 방안의 근거를 본 연구를 통해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2) 회복탄력성

최근 의료 환경은 질병 양상의 다변화, 국민 권리의식 향상, 사회 제도 변화로 인해 의료수요 증가로 이어졌으며 간호 인력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유미자, 김종경, 2016). 간호직은 병원 내 여러 복잡한 인간관계, 새로운 의료기술과 지식 습득,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직업적 특성이 있으며 이는 다른 전문직에 비해 간호사의 책임이 막중하여 스트레스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안혜경, 강인순, 2008). 이처럼 다양한 이유로 간호현장을 떠나는 간호사가 늘면서 간호 인력 부족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어 이를 현명하게 극복할 수 있는 회복탄력성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고 있다(권혜경, 김신향, 박시현, 2017).

회복탄력성이란 역경에 긍정적으로 적응하는 개인의 능력을 의미한다(Jackson et al., 2007). 또한, 역경과 스트레스에도 원래의 상태로 회복하여 주어진 환경에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역동적인 상호작용 과정을 포함한 능력 및 특성의 결합을 의미한다(이경희, 이소우, 2005). 실제로 간호사들은 간호현장에서 여러 어려움과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소진 및 이직 등의 부정적인 결과를 경험하기도 하지만, 일부 간호사들은 이런 힘든 역경들을 잘 극복하여 전문가로서 성장해 가는 모습을 보인다(박미미, 2015). 이에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규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국내 선행연구에서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요양병원 간호사의 감성지능과 직무스트레스 대처 및 조직사회화(문주희, 윤숙희, 2019), 중환자실 간호사의 의사소통능력 및 조직 의사소통만족도(김유나, 2020) 등이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혈액투석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직무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이직의도가 높으며, 극

복력 및 전문직 자아개념이 높을수록 이직의도는 낮게 나타났다(홍인숙, 2019). 혈액투석실 간호사의 전문직 삶의 질 구조 모형 연구에 의하면 회복탄력성이 낮을수록 소진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홍인숙, 2022), 극복력, 전문직 자아개념이 소진에 미치는 영향은 극복력이 낮을수록 소진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임정민, 2016). 응급실 간호사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대인관계 스트레스가 소진 및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회복탄력성과의 매개 효과가 유의함을 알 수 있었고 회복탄력성이 높을수록 소진 정도는 낮아지고, 직무만족도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권소영, 손민서, 강인순, 2021).

실제로 일상의 많은 부정적인 상황에 직면하였을 때 개인이 지각하는 정도에 따라 스트레스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면 심리적, 행동적 문제를 일으키지만 이러한 상황을 개인의 성장 기회로 삼아 효과적으로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경자, 2019). 이에 혈액투석실 간호사의 회복탄력성과 소진의 연관성을 확인하여 회복탄력성을 높여 소진을 감소시키는 방안의 근거를 본 연구를 통해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문헌고찰을 바탕으로 혈액투석 환자에게 수준 높은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서 혈액투석실 간호사의 간호업무수행능력과 회복탄력성의 관계를 파악하고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소진을 감소시키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또한, 간호업무수행능력과 회복탄력성을 높여 소진을 감소시키는 방안의 근거를 본 연구를 통해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혈액투석실 간호사의 간호업무수행능력과 회복탄력성이 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간호사 면허 취득 후 국내 의료기관 혈액투석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로, 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편의 표집 추출하였다.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국내 의료기관 혈액투석실에서 근무 중인 일반 간호사와 책임 간호사이며 혈액투석실 근무경력이 최소 3개월 이상 경력을 가진 간호사로서 본 연구의 목적에 대해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참여를 동의한 자이다. 대상자 선정기준으로 혈액투석실에서 근무하며 혈액투석실 근무경력이 최소 3개월 이상인 간호사로 선정한 것은 독립적 혈액투석 간호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고 있는 선행연구(허영주, 이병숙, 2011)에 따른 것이다. 제외 기준은 혈액투석실에서 근무하지 않는 간호사, 혈액투석실 근무경력 3개월 미만 간호사, 혈액투석실에서 혈액투석 간호를 제공하지 않는 수간호사이다.

대상자 수는 표본 수 계산 프로그램인 G *power program version 3.1.9.7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다중회귀분석(multiple linear regression)을 위해 중간 효과크기(effect size) .15, 유의수준(α) .05, 검정력($1-\beta$) .80, 예측변수 13개 적용 시, 최소 131명이 산출되어 탈락률 10% 고려하여 총 144명의 혈액투석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수집을 위해 배포한

144부의 온라인 설문지 중 대상자 선정 제외 기준에 부합한 10부와 불충분한 응답을 한 설문지 1부를 제외한 총 133부를 최종적으로 자료 분석에 사용하였다.

3. 연구 도구

본 연구의 도구는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1문항, 간호업무수행능력 측정 도구 30문항, 회복탄력성 측정 도구 25문항, 소진 측정 도구 19문항으로 총 8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1)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은 성별, 연령, 종교, 결혼상태, 학력, 임상경력, 투석실 근무경력, 직위, 교대 근무 형태, 근무 병원 형태, 직무 관련 특성(동정맥루 천자시 부담감)으로 총 11문항으로 구성하였다.

2) 간호업무수행능력

이은미(2008)가 간호사의 인사고과 도구 개발 연구에서 혈액투석실 간호사의 업무수행 평가도구로 개발한 것을 서정애(2015)가 수정 및 보완한 도구로 사용하였다. 총 30개 문항이며, 12개 요인(신체기능 증진, 투약, 투석, 검사, 응급, 안위, 안전, 위생, 교육과 상담, 의사소통, 영적간호 및 병동관리)으로 구성되어 있다.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며 ‘매우 못한다’ 1점, ‘잘 못한다’ 2점, ‘보통이다’ 3점, ‘잘한다’ 4점, ‘매우 잘한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업무수행능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은미(2008) 연구에서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95였고, 서정애(2015)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97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96이었다.

3) 회복탄력성

Connor 와 Davidson (2003)이 개발한 Connor-Davidson Resilience Scale (CD-RISC)을 번역한 한국어판 코너-데이비드슨 회복력 척도(K-CD-RISC)를, CD-RISC: Home (www.cd-risc.com)에서 원저자로부터 도구사용에 대해 승인을 받고 구매하여 사용하였다. 총 25문항이며, 5개의 하위요인은 ‘강인성’ 9문항, ‘인내’ 8문항, ‘낙관성’ 4문항, ‘지지’ 2문항, ‘영성’ 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백현숙, 이경욱, 주은정, 이미영, 최경숙, 2010). 5점 Likert 형식의 척도로 각 문항은 0~4점이며 ‘전혀 그렇지 않다’ 0점, ‘거의 그렇지 않다’ 1점, ‘때때로 그렇다’ 2점, ‘흔히 그렇다’ 3점, ‘거의 언제나 그렇다’ 4점으로 구성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회복탄력성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Connor 와 Davidson (2003) 연구에서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89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94이었다.

4) 소진

Kristensen 등(2005)이 개발한 코펜하겐 소진 척도(Copenhagen Burnout Inventory: CBI)를 강종수(2022)가 한국어판 CBI 척도를 개발하여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한 도구로 사용하였다. 총 19문항이며, 하위요인은 ‘개인적 소진’ 6문항, ‘업무관련 소진’ 7문항, ‘클라이언트관련 소진’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약간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약간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소진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Kristensen 등(2005)의 연구에서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85~.87였고, 강종수(2022)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91이었다. 본 연구에서 총 Cronbach’s α 는 .93이었고,

개인적 소진요인 Cronbach's α 는 .87, 업무관련 소진요인 Cronbach's α 는 .79, 클라이언트관련 소진요인 Cronbach's α 는 .94이었다.

4. 자료수집 절차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자가 보고형의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2022년 12월 2일부터 2023년 4월 26일까지 자료수집을 시행하였으며 연구자가 속한 성신여자대학교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No : SSWUIRB-2022-058)의 심의 통과 후 진행하였다.

자료수집은 병원투석간호사회에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여 사전 동의를 얻은 후, 병원투석간호사회 홈페이지(www.knna.or.kr) 주요 소식 문의게시판에 Google Forms를 이용하여 URL 통해서 직접 연구대상자가 접속하여 온라인 설문조사에 응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설문조사 과정에서 원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철회할 수 있는 것을 명시하였고, 연구동의서에 전자서명으로 동의한 자에 한해 온라인 설문지로 자료수집을 하였다. 온라인 설문지 응답은 대략 15분~20분 정도 소요되며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에게는 연구 참여의 감사 표시로 소정의 답례품을 제공하였다.

5.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자료수집 전에 성신여자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IRB No : SSWUIRB-2022-058)의 승인을 받았다. 설문 작성 전 온라인 설문지 첫 장에 연구내용, 연구목적, 수집된 모든 자료와 개인정보는 익명을 원칙으로 비밀 보장되고, 학술적인 목적으로만 사용하며 익명화되어 통계 처리될 예정임을 명시하였다. 만약 연구에 참여 후 설문지 작성에 따른 피로 발생 시 설문 중간에 휴식을 취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자발적 의사에 따라 설문을 중단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연구 관련 전자자료 일체는 본 연구에 등록된 연구담당자에게만 접근이 허용될 수 있도록 보안 유지하며, PC의 경우 암호 설정하였고 수집된 전자자료를 보관하는 문서도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보관하였다. 수집된 전자자료는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15조 4.2항에 따라 3년 보관한 후 전자자료를 영구 삭제할 예정이다.

6.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26.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 분석을 시행하였다.

1) 연구 대상자 일반적 특성은 기술통계를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및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측정 도구의 신뢰도는 내적 일관성 신뢰도인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2) 연구 대상자의 간호업무수행능력, 회복탄력성, 소진의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3)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업무수행능력, 회복탄력성, 소진과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independent t-test와 one-way ANOVA로 분석하였고, 사후 검증은 Scheffé test를 실시하였다.

4) 연구 대상자의 간호업무수행능력, 회복탄력성, 소진과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피어슨 상관계수(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5) 연구 대상자의 간호업무수행능력, 회복탄력성이 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ple linear regression)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IV.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 대상으로 선정된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성별, 연령, 종교, 결혼상태, 학력, 임상경력, 투석실 근무경력, 직위, 교대 근무 형태, 근무 병원 형태, 직무 관련 특성(동정맥루 천자 시 부담감)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고 그 결과는 <Table 1>과 같다.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37.67 ± 8.15 세였고, 30~39세 62명(46.6%)으로 가장 많았으며, 40~49세 40명(30.1%), 29세 이하 20명(15%), 50세 이상 11명(8.3%) 순이었다. 종교의 경우 종교 없음이 82명(61.7%)으로 종교를 가진 51명(38.3%)보다 많았다. 성별은 여성 131명(98.5%), 남성 2명(1.5%)이었으며 결혼상태는 기혼 79명(59.4%), 미혼 54명(40.6%)이었다. 학력의 경우 학사가 93명(69.9%)으로 가장 많았고 전문학사 21명(15.8%), 석사이상 19명(14.3%) 순이었다. 임상경력은 평균 12.66 ± 7.88 년으로 15년 이상이 41명(30.8%)으로 가장 많았고 5~10년 40명(30.1%), 10~14년 38명(28.6%), 2~5년 9명(6.8%), 2년 미만 5명(3.8%) 순이었다. 투석실 근무경력은 평균 6.03 ± 4.99 년으로 2년 미만이 37명(27.8%)으로 가장 많았고 5~10년 34명(25.6%), 2~5년 29명(21.8%), 10~14년 25명(18.8%), 15년 이상 8명(6.0%) 순으로 나타났다. 직위는 일반 간호사가 116명(87.2%)으로 가장 많았고 책임 간호사는 17명(12.8%)이었다. 교대 근무 형태는 2교대 근무가 67명(50.4%)으로 가장 많았고 상근직 근무 38명(28.6%), 3교대 근무 28명(21.1%) 순이었다. 근무 병원 형태는 종합병원이 71명(53.4%)으로 가장 많았고 신장클리닉 31명(23.3%), 병원 16명(12.0%), 상급종합병원 15명(11.3%) 순으로 나타났다. 동정맥루 천자 시 부담감은 평균 5.43 ± 2.09 점으로 나타났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33)

Variables	Category	n (%)	M±SD
Age (year)	≤29	20 (15.0)	37.67±8.15
	30~39	62 (46.6)	
	40~49	40 (30.1)	
	≥50	11 (8.3)	
Religion	No	82 (61.7)	
	Yes	51 (38.3)	
Sex	Male	2 (1.5)	
	Female	131 (98.5)	
Marital status	Unmarried	54 (40.6)	
	Married	79 (59.4)	
Education	College	21 (15.8)	
	University	93 (69.9)	
	≥Master	19 (14.3)	
Clinical career (year)	<2	5 (3.8)	12.66±7.88
	2-5	9 (6.8)	
	5-10	40 (30.0)	
	10-14	38 (28.6)	
	≥15	41 (30.8)	
Dialysis career (year)	<2	37 (27.8)	6.03±4.99
	2-5	29 (21.8)	
	5-10	34 (25.6)	
	10-14	25 (18.8)	
	≥15	8 (6.0)	
Position	Staff nurse	116 (87.2)	
	Charge nurse	17 (12.8)	
Shift	12 hour shift	67 (50.4)	
	8 hour shift	28 (21.0)	
	Day only	38 (28.6)	
Hospital type	Dialysis clinic	31 (23.3)	
	Hospital	16 (12.0)	
	General hospital	71 (53.4)	
	Tertiary hospital	15 (11.3)	
Fistula care burden			5.43±2.09

2. 대상자의 간호업무수행능력, 회복탄력성, 소진

1) 대상자의 간호업무수행능력, 회복탄력성, 소진 수준

본 연구 대상자의 간호업무수행능력, 회복탄력성, 소진의 수준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간호업무수행능력은 평균 3.79 ± 0.47 점, 회복탄력성은 평균 2.46 ± 0.57 점, 소진 정도는 평균 3.02 ± 0.60 점이었다. 구체적으로 회복탄력성의 하위요인별 평균 점수는 강인성 2.31 ± 0.63 점, 인내 2.60 ± 0.62 점, 낙관성 2.52 ± 0.74 점, 지지 2.91 ± 0.70 점, 영성 2.02 ± 0.76 점이었다. 소진 정도의 하위요인별 평균 점수는 개인적 소진 3.27 ± 0.70 점, 업무관련 소진 3.11 ± 0.64 점, 클라이언트관련 소진 2.67 ± 0.79 점이었다.

Table 2. Level of Performance, Resilience and Burnout (N=133)

Variables	Category	M±SD	Min	Max	Range
Performance	total	3.79 ± 0.47	2.7	5.0	1~5
Resilience	total	2.46 ± 0.57	1.1	4.0	0~4
	hardiness (9)	2.31 ± 0.63	0.8	4.0	
	persistence (8)	2.60 ± 0.62	1.4	4.0	
	optimism (4)	2.52 ± 0.74	0.8	4.0	
	support (2)	2.91 ± 0.70	1.0	4.0	
	spiritual influence (2)	2.02 ± 0.76	0.5	4.0	
Burnout	total	3.02 ± 0.60	1.5	4.4	1~5
	personal burnout (6)	3.27 ± 0.70	1.5	4.8	
	work-related burnout (7)	3.11 ± 0.64	1.4	4.6	
	client-related burnout (6)	2.67 ± 0.79	1.0	4.8	

2) 대상자의 간호업무수행능력, 회복탄력성, 소진 문항별 수준

(1) 대상자의 간호업무수행능력 문항별 수준

본 연구 대상자의 간호업무수행능력 문항별 점수를 살펴보면 <Table 3>과 같다. 점수가 가장 높은 문항은 ‘환의 교환 및 침상관리를 적절하게 수행한다’ 평균 4.12 ± 0.69 점이었고, ‘혈액투석 후 마무리를 정확하게 수행한다’ 평균 4.11 ± 0.70 점, ‘5 right를 준수하여 정확한 투약을 수행한다’ 평균 4.10 ± 0.66 점 순이었다. 점수가 가장 낮은 문항은 ‘영적 지지와 관련된 간호를 관심있게 수행한다’ 평균 3.20 ± 0.89 점이었다.

Table 3. Performance level by item

(N=133)

Item	M±SD	Min	Max	Rank
Physical function enhancement nursing				
Nursing related to respiratory measurement, airway security, and oxygen supply is properly performed.	3.77±0.68	2	5	18
Oral and parenteral nutrition can be performed, and nutritional status is accurately identified.	3.56±0.77	2	5	26
Accurately know the purpose and content of drainage care and implement it.	3.52±0.69	2	5	27
Control of bowel movements and urination.	3.59±0.74	2	5	25
Dialysis nursing				
Preparing accurate and safe for dialysis.	4.05±0.69	3	5	4
Perform maintenance and observation of hemodialysis accurately.	3.97±0.71	2	5	9
Accurately perform the finishing after hemodialysis.	4.11±0.70	2	5	2
Medication nursing				
Perform accurate medication in compliance with 5 right.	4.10±0.66	3	5	3
Know the purpose of intravenous, intramuscular, subcutaneous, and intradermal injections, administer them accurately, and deal with side effects appropriately.	3.99±0.69	2	5	7
Examination nursing				
Properly carry out inspection reservations and explanations according to inspections.	3.77±0.73	2	5	17
Accurately perform test preparation and sample collection.	4.01±0.65	2	5	5
Perform accurate patient observation during invasive and non-invasive examinations.	3.83±0.71	2	5	12
Emergency nursing				
The management of various lines and emergency items is carried out quickly and accurately.	3.63±0.78	2	5	24
Clarify the crisis situation through patient status measurement.	3.65±0.69	2	5	23
Perform emergency nursing-related tasks quickly and smoothly.	3.50±0.77	1	5	28
Comfort nursing				
Perform appropriate care for pain, sleep and rest.	3.68±0.67	2	5	21
Perform pressure ulcer and wound care thoroughly.	3.44±0.75	2	5	29

Item	M±SD	Min	Max	Rank
Provide appropriate emotional support to the patient.	3.78±0.80	2	5	16
Safety nursing				
Infection prevention management is thoroughly carried out according to the infection control guidelines.	3.86±0.67	2	5	11
Accident prevention management is thoroughly carried out in accordance with the safety management guidelines.	3.83±0.69	2	5	13
Hygiene nursing				
Perform appropriate bed care and change of patient's clothing.	4.12±0.69	2	5	1
Education and counseling nursing				
Health education and counseling suitable for patients can be conducted faithfully.	3.81±0.79	2	5	14
Communication nursing				
Works smoothly and cooperatively with medical staff.	3.98±0.67	3	5	8
Perform work cooperation between nursing staff smoothly and cooperatively.	4.01±0.61	3	5	6
Facilitate information sharing and business cooperation with other departments.	3.70±0.72	2	5	20
Spiritual nursing				
Care related to spiritual support is carried out with interest.	3.20±0.89	1	5	30
Ward management				
Manage nursing information and documents appropriately and accurately.	3.65±0.76	2	5	22
Properly manage medicines, consumables, equipment and medical devices.	3.80±0.71	2	5	15
Safely supports patient movement and transportation.	3.74±0.64	3	5	19
Performs dialysis room environment management and facility management tasks in a clean and safe manner.	3.92±0.70	2	5	10

(2) 대상자의 회복탄력성 문항별 수준

본 연구 대상자의 회복탄력성 문항별 점수를 살펴보면 점수가 가장 높은 문항은 회복탄력성 하위요인 중 지지 요인에 해당하는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나를 도와줄 가깝고 든든한 사람이 적어도 하나 있다’ 평균 3.10 ± 0.80 점이었다. 그다음은 인내 요인에 해당하는 ‘과거의 성공들은 내가 새로운 도전과 역경을 다루는 데 자신감을 준다’ 평균 2.89 ± 0.76 점, ‘나는 결과에 상관없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 평균 2.88 ± 0.76 점 순이었다. 점수가 가장 낮은 문항은 영성 요인에 해당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분명한 해결책이 없을 때에는, 가끔 신이나 운명이 도와줄 수 있다’ 평균 1.86 ± 1.08 점이었다.

(3) 대상자의 소진 문항별 수준

본 연구 대상자의 소진 문항별 점수를 살펴보면 <Table 4>와 같다. 점수가 가장 높은 문항은 소진의 하위요인 중 개인적 소진 요인에 해당하는 ‘얼마나 자주 피곤하다고 느끼십니까?’ 평균 3.80 ± 0.80 점이었고, ‘얼마나 자주 육체적으로 지치십니까?’ 평균 3.65 ± 0.86 점, 업무관련 소진 요인에 해당하는 ‘근무를 마칠 때쯤이면 지쳤다고 느끼십니까?’ 평균 3.48 ± 0.95 점 순이었다. 점수가 가장 낮은 문항은 소진의 업무관련 소진 요인에 해당하는 ‘일이 당신을 좌절하게 합니까?’ 평균 2.50 ± 0.83 점이었다.

Table 4. Burnout level by item

(N=133)

Item	M±SD	Min	Max	Rank
Personal burnout				
How often do you feel tired?	3.80±0.80	2	5	1
How often are you physically exhausted?	3.65±0.86	1	5	2
How often are you emotionally exhausted?	3.39±0.94	1	5	4
How often do you think:"I can't take it anymore"?	2.80±0.87	1	5	12
How often do you feel worn out?	3.34±0.91	1	5	5
How often do you feel weak and susceptible to illness?	2.62±0.95	1	5	15
Work-related burnout				
Do you feel burnt out because of your work?	3.18±0.91	1	5	8
Is your work emotionally exhausting?	3.20±0.94	1	5	7
Does your work frustrate you?	2.50±0.83	1	5	19
Do you feel worn out at the end of the working day?	3.48±0.95	1	5	3
Are you exhausted in the morning at the thought of another day at work?	3.23±1.15	1	5	6
Do you feel that every working hour is tiring for you?	3.07±0.96	1	5	10
Do you have enough energy for family and friends during leisure time?	3.14±0.93	1	5	9
Client-related burnout				
Do you find it hard to work with clients?	2.80±0.96	1	5	13
Do you find it frustrating to work with clients?	2.50±0.82	1	5	18
Does it drain your energy to work with clients?	2.83±0.90	1	5	11
Do you feel that you give more than you get back when you work with clients?	2.53±0.89	1	5	17
Are you tired of working with clients?	2.74±0.94	1	5	14
Do you sometimes wonder how long you will be able to continue working with clients?	2.60±0.91	1	5	16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업무수행능력, 회복탄력성, 소진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업무수행능력, 회복탄력성, 소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업무수행능력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는 연령($F=4.63, p=.004$), 임상경력($F=2.79, p=.029$), 직위($F=4.25, p=.041$), 근무 병원 형태($F=4.89, p=.003$)였다. 간호업무수행능력은 연령의 경우 Scheffé 사후검정결과 50세 이상 평균 4.25 ± 0.37 점이 29세 이하 평균 3.64 ± 0.34 점, 30세~39세 평균 3.75 ± 0.52 점, 40~49세 평균 3.79 ± 0.41 점보다 높았다. 임상경력별 간호업무수행능력은 15년 이상 평균 3.93 ± 0.48 점이 가장 높고 2~5년 평균 3.47 ± 0.33 점이 가장 낮았다. 직위에 따른 간호업무수행능력은 책임 간호사 평균 4.00 ± 0.37 점이 가장 높고 일반 간호사 평균 3.75 ± 0.48 점이 가장 낮았다. 근무 병원 형태의 경우 Scheffé 사후검정결과 상급종합병원 간호사의 평균 4.19 ± 0.49 점이 신장클리닉 평균 3.75 ± 0.46 점, 병원 평균 3.62 ± 0.35 점, 종합병원 평균 3.76 ± 0.46 점보다 간호업무수행능력이 높았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회복탄력성은 성별($F=7.26, p=.008$), 결혼상태($F=5.17, p=.02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성별의 경우 여성 평균 3.52 ± 0.34 점으로 가장 높고 남성 평균 2.45 ± 0.56 점이 가장 낮았다. 결혼상태의 경우 미혼 평균 2.55 ± 0.51 점이 가장 높고 기혼자 평균 2.33 ± 0.63 점이 가장 낮았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소진 정도는 학력($F=3.90, p=.023$), 임상경력($F=2.76, p=.031$), 투석실 근무경력($F=2.80, p=.029$), 교대 근무 형태($F=7.58, p=.001$), 근무 병원 형태($F=4.27, p=.007$)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학력의 경우 Scheffé 사후검정결과 석사 학위 이상 평균 3.33 ± 0.54 점이 전문학사 학위 평균 2.81 ± 0.44 점보다 소진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임상경력 의 경우 2~5년 평균 3.14 ± 0.54 점으로 소진 정도가 가장 높았고, 5~10년 평균 3.13 ± 0.61 점, 10~14년 평균 3.11 ± 0.53 점, 15년 이상 평균 2.89 ± 0.61 점, 2년 미만 평균 2.36 ± 0.59 점 순으로 나타났다. 투석실 근무경력의 경우 5~10년 평균 3.23 ± 0.66 점이 소진 정도가 가장 높았고, 2~5년 평균 3.08 ± 0.57 점, 2년 미만 평균 3.01 ± 0.60 점, 10~14년 평균 2.79 ± 0.46 점, 15년 이상 평균 2.67 ± 0.59 점 순으로 나타났다. 교대 근무 형태의 경우 Scheffé 사후검정결과 상근직 근무 간호사의 평균 3.32 ± 0.63 점이 3교대 평균 2.95 ± 0.61 점, 2교대 평균 2.88 ± 0.52 점의 근무 간호사보다 소진 수준이 높았다. 근무 병원 형태의 경우 Scheffé 사후검정결과 상급종합병원 간호사의 평균 3.44 ± 0.38 점이 신장클리닉 간호사의 평균 2.83 ± 0.57 점보다 소진 수준이 높았다.

Table 5. Differences in Performance, Resilience and Burnout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33)

Variables	Category	Performance		Resilience		Burnout	
		M±SD	t/F (<i>p</i>), Scheffé	M±SD	t/F (<i>p</i>), Scheffé	M±SD	t/F (<i>p</i>), Scheffé
Age (years)	≤29 ^a	3.64±0.34	4.63 (.004)	2.49±0.67	0.86 (.466)	2.99±0.67	2.00 (.118)
	30~39 ^b	3.75±0.52		2.42±0.53		3.12±0.59	
	40~49 ^c	3.79±0.41		2.45±0.54		2.98±0.50	
	≥50 ^d	4.25±0.37	d>a,b,c	2.71±0.71		2.67±0.77	
Religion	No	3.74±0.46	2.08 (.152)	2.40±0.53	2.44 (.121)	3.05±0.61	0.43 (.514)
	Yes	3.86±0.49		2.56±0.62		2.98±0.59	
Sex	Male	3.78±0.47	1.70 (.194)	2.45±0.56	7.26 (.008)	3.03±0.59	1.38 (.242)
	Female	4.22±0.26		3.52±0.34		2.53±1.49	
Marital status	Unmarried	3.84±0.47	2.35 (.128)	2.55±0.51	5.17 (.025)	3.00±0.58	0.21 (.646)
	Married	3.71±0.47		2.33±0.63		3.05±0.63	
Education	College ^a	3.80±0.45	0.15 (.862)	2.44±0.53	0.21 (.812)	2.81±0.44	3.90 (.023)
	University ^b	3.77±0.48		2.48±0.56		3.00±0.62	
	≥Master ^c	3.84±0.50		2.39±0.68		3.33±0.54	c>a
Clinical career (years)	<2	3.75±0.60	2.79 (.029)	2.74±0.83	0.57 (.686)	2.36±0.59	2.76 (.031)
	2-5	3.47±0.33		2.39±0.61		3.14±0.54	
	5-10	3.67±0.48		2.42±0.58		3.13±0.61	
	10-14	3.84±0.42		2.42±0.47		3.11±0.53	
	≥15	3.93±0.48		2.53±0.62		2.89±0.61	
Dialysis career (years)	<2	3.64±0.48	2.21 (.072)	2.44±0.62	1.36 (.250)	3.01±0.60	2.80 (.029)
	2-5	3.83±0.47		2.56±0.63		3.08±0.57	
	5-10	3.75±0.45		2.31±0.44		3.23±0.66	
	10-14	3.98±0.47		2.62±0.62		2.79±0.46	
	≥15	3.85±0.34		2.38±0.33		2.67±0.59	
Position	Staff nurse	3.75±0.48	4.25 (.041)	2.43±0.56	3.51 (.063)	3.05±0.57	1.85 (.176)
	Charge nurse	4.00±0.37		2.70±0.63		2.84±0.76	
Shift	12 hour shift ^a	3.82±0.48	1.57 (.212)	2.54±0.54	1.86 (.160)	2.88±0.52	7.58 (.001)
	8 hour shift ^b	3.86±0.46		2.46±0.53		2.95±0.61	
	Day only ^c	3.68±0.46		2.32±0.63		3.32±0.63	c>a,b
Hospital type	Dialysis clinic ^a	3.75±0.46	4.89 (.003)	2.52±0.57	0.27 (.846)	2.83±0.57	4.27 (.007)
	Hospital ^b	3.62±0.35		2.49±0.43		2.85±0.54	
	General hospital ^c	3.76±0.46	d>a,b,c	2.42±0.61		3.06±0.62	d>a
	Tertiary hospital ^d	4.19±0.49		2.51±0.58		3.44±0.38	

4. 대상자의 간호업무수행능력, 회복탄력성, 소진과의 상관관계

1) 대상자의 간호업무수행능력, 회복탄력성, 소진의 상관관계

본 연구 대상자의 간호업무수행능력, 회복탄력성, 소진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간호업무수행능력은 회복탄력성과 양의 상관관계($r=.52, p<.001$), 회복탄력성은 소진과 음의 상관관계($r=-.37, p<.001$)가 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Table 6. Correlation among Performance, Resilience, and Burnout (N=133)

Variables	Performance	Resilience	Burnout
	r (p)	r (p)	r (p)
Performance	1		
Resilience	.52 (<.001)	1	
Burnout	-.16 (.063)	-.37 (<.001)	1

2) 대상자의 간호업무수행능력, 회복탄력성, 소진의 하위요인별 상관관계

본 연구 대상자의 간호업무수행능력, 회복탄력성 및 소진의 하위요인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7>과 같다.

간호업무수행능력은 회복탄력성의 하위요인 5항목 강인성($r=.49, p<.001$), 인내($r=.46, p<.001$), 낙관성($r=.38, p<.001$), 지지($r=.40, p<.001$), 영성($r=.42, p<.001$)과 소진의 하위요인 중 개인적 소진($r=.49, p<.001$)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회복탄력성의 하위요인 중 강인성 항목은 소진의 하위요인 중 개인적 소진($r=-.33, p<.001$), 업무관련 소진($r=-.34, p<.001$), 클라이언트관련 소진($r=-.38, p<.001$)과 모두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인내 항목은 개인적 소진($r=-.27, p<.001$), 업무관련 소진($r=-.25, p<.001$), 클라이언트관련 소진($r=-.32, p<.001$)과 모두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낙관성 항목은 업무관련 소진($r=-.16, p<.001$), 클라이언트관련 소진($r=-.30, p<.001$)과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지지 항목은 개인적 소진($r=-.25, p=.004$), 업무관련 소진($r=-.25, p=.003$), 클라이언트관련 소진($r=-.35, p<.001$)과 모두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Table 7. Correlation among Performance, Resilience of factor and Burnout of factor

(N=133)

Variables		Performance	hardiness	persistence	optimism	support	spiritual influence	personal burnout	work-related burnout	client-related burnout
		r (p)	r (p)	r (p)	r (p)	r (p)	r (p)	r (p)	r (p)	r (p)
Performance		1								
Resilience	hardiness	.49 (<.001)	1							
	persistence	.46 (<.001)	.79 (<.001)	1						
	optimism	.38 (<.001)	.69 (<.001)	.76 (<.001)	1					
	support	.40 (<.001)	.54 (<.001)	.54 (<.001)	.51 (<.001)	1				
	spiritual influence	.42 (<.001)	.56 (<.001)	.58 (<.001)	.56 (<.001)	.24 (.006)	1			
Burnout	personal burnout	.49 (<.001)	-.33 (<.001)	-.27 (<.001)	-.17 (.051)	-.25 (.004)	-.08 (.340)	1		
	work-related burnout	-.12 (.171)	-.34 (<.001)	-.25 (<.001)	-.16 (<.001)	-.25 (.003)	-.04 (.620)	.65 (<.001)	1	
	client-related burnout	-.14 (.097)	-.38 (<.001)	-.32 (<.001)	-.30 (<.001)	-.35 (<.001)	-.04 (.689)	.45 (<.001)	.68 (<.001)	1

5.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본 연구 대상자의 간호업무수행능력과 회복탄력성이 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8>과 같다.

소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통제변수를 고려하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통제변수로서 포함시켰다. 분석에 사용된 변수는 정규분포를 이루고 있었으며 분산팽창요인(Variance Inflation Factor, VIF) 값은 1.14-4.70로 10보다 크지 않아 다중공선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Durbin-Watson 값은 1.80으로 2에 가까워 자기상관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의 적합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F=4.950$, $p<.001$). 통제변수가 종속변수를 설명하는 R^2 은 .388로 38.8%의 설명력을 보였다.

회복탄력성이 소진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beta=-.25$, $p=.011$) 회복탄력성이 높을수록 소진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이 소진에 미치는 영향은 학력의 경우 석사 이상($\beta=.20$, $p=.047$), 교대 근무 형태의 경우 상근직($\beta=.34$, $p<.001$), 근무 병원 형태의 경우 상급종합병원($\beta=.34$, $p<.001$)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Table 8. The Regression Analysis of factors influence on Burnout (N=133)

		Burnout					
		b	SE	β	t	p	VIF
(Constant)		74.498	10.618		7.016	<.001	
Performance		-.090	.079	-.111	-1.130	.261	1.882
Resilience		-.195	.076	-.245	-2.584	.011	1.749
Age	(years)	-.197	.214	-.140	-.918	.360	4.561
Religion	(ref. no religion)						
	Religious	-.220	1.787	-.009	-.123	.902	1.139
Gender							
Marital status	(ref. unmarried)						
	Married	-3.781	1.975	-.144	-1.685	.095	1.394
Education	(ref. collage)						
	University	1.662	2.486	.067	.669	.505	1.962
	Master	6.590	3.280	.203	2.009	.047	1.989
Clinical career	(years)	.299	.223	.208	1.342	.182	4.706
Dialysis career	(years)	-.314	.217	-.140	-1.447	.151	1.816
Position	(ref. staff nurse)						
	Charge nurse	.501	2.991	.015	.167	.867	1.506
Shift	(ref. 12 hour shift)						
	8 hour shift	4.369	2.658	.157	1.644	.103	1.773
	Day only	8.647	2.085	.344	4.147	<.001	1.340
Hospital type	(ref. Dialysis clinic)						
	Hospital	-1.341	3.030	-.038	-.443	.659	1.466
	General hospital	3.767	2.555	.165	1.474	.143	2.452
	Tertiary hospital	12.299	3.353	.342	3.668	<.001	1.699
Fistula care burden		.628	.427	.115	1.472	.144	1.196

F=4.950, p<.001; R²=.388 Adj-R²= .321; Durbin-Watson=1.80

V. 논의

본 연구는 혈액투석실 간호사의 간호업무수행능력, 회복탄력성, 소진 정도를 확인하고 각 변수의 상관관계를 파악함으로써 간호업무수행능력과 회복탄력성이 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시행되었다. 이를 통해 혈액투석실 간호사의 간호업무수행능력과 회복탄력성을 증진시켜 소진을 감소시키는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주요 연구 결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하고자 한다.

1. 혈액투석실 간호사의 간호업무수행능력

본 연구에서 혈액투석실 간호사의 간호업무수행능력은 5점 만점에 평균 3.79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연구 도구를 사용하여 혈액투석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서정애(2015)의 연구결과인 평균 3.62점보다 높은 점수이다.

한편 다른 연구 도구를 사용한 선행연구 결과와 비교해보면 대학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김미영과 이혜경(2019)의 연구 결과에서 5점 만점에 평균 2.74점, 응급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김수진과 김수울(2022)의 연구 결과에서 5점 만점에 평균 3.78점, 조미정과 성미혜(2018)의 연구 결과에서 5점 만점에 평균 3.70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국내 혈액투석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간호업무수행능력을 측정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으로 직접적인 비교와 검토에는 어려움이 있어 반복적인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간호업무수행능력에 관한 문항별 점수를 살펴보면 위생 간호 요인 중 ‘환의 교환 및 침상관리를 적절하게 수행한다’ 평균 4.12점, 투석 간호 요인 중 ‘혈액투석 후 마무리를 정확하게 수행한다’ 평균 4.11점, 투약 간호 요인 중

‘5 right를 준수하여 정확한 투약을 수행한다’ 평균 4.10점 문항 순으로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반면 영적 간호 요인 중 ‘영적 지지와 관련된 간호를 관심있게 수행한다’ 평균 3.20점 문항에서 가장 점수가 낮았으며 이는 혈액투석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서정애(2015)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혈액투석 환자의 신체적, 정서적인 부분까지 고려하여 양질의 간호를 제공해야 하는(김민선 등, 2015), 혈액투석실 간호사가 간호업무수행 능력에 있어 전문적인 투석 간호영역뿐만 아니라 기본간호업무수행 능력도 중요하다는 인식을 두고 이를 숙련된 기술로 능숙하게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영적 간호 요인의 점수가 낮은 이유는 투석과 관련된 간호업무에 중점을 두어 혈액투석 환자와 함께 있는 시간이 부족한(서정애, 2015), 혈액투석실 간호사의 업무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주 2~3회, 평균 4시간 정도 혈액투석 치료 시 투석 전, 중, 후 간호에 집중된 간호업무수행을 담당하고 있어 정서적인 지지와 관련된 교류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업무수행능력은 연령, 임상경력, 직위, 근무 병원 형태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연령이 많고 직위가 높을수록 혈액투석실 간호사의 간호업무수행능력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는 혈액투석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서정애(2015)의 연구와 응급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김정희 등, 2010; 조미정, 성미혜, 2018)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또한, 임상경력의 경우 2년 미만 경력을 제외하고 임상경력이 많을수록 간호업무수행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응급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김정희 등, 2010; 조미정, 성미혜, 2018; 김수진, 김수을, 2022)의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하였다. 혈액투석 환자의 수가 급증하게 되면서 이들에 대해 전문적인 간호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혈액투석실 간호사 인력 증원의 필요성이 증가하였으며(김영미 등, 2012), 혈액투석실 간호사의 경우 연령이 증가할수록 임상경험이 쌓이고 직위가 높아지며 이를 바탕으로

한 능숙한 투석과 관련된 간호업무수행능력을 발휘할 수 있기에 장기근속을 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근무 병원 형태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혈액투석실 간호사가 신장클리닉, 병원, 종합병원 간호사보다 간호업무수행능력이 높게 나타났다. 병원 규모가 클수록 간호사들에게 교육프로그램 및 학회나 학술대회 등의 참석과 대학원 진학 등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며, 근거기반 혈액투석 간호지식은 근무 병원 형태에 따라 2차, 3차 병원일수록 지식의 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이희수, 정은숙, 최경아, 유승오, 2016). 이는 혈액투석실 간호사의 간호업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투석 간호 교육프로그램 적용 시 근무 병원 형태에 따라 수준별로 특성화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직무 관련 특성에 해당하는 동정맥루 천자시 부담감은 0~10점 만점에 평균 5.43점으로, 혈액투석 환자는 치료 시 동정맥루 혈관에 주사를 삽입하는 침습적 처치에 대한 불안과 고통을 가지고 있어(염은이, 김미영, 2014), 혈액투석실 간호사가 간호업무수행 중 동정맥루 천자와 관련된 부담감이 높을 것으로 생각되었지만 본 연구에서는 중증도의 부담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력과 경험이 많은 간호사들은 동정맥루 천자 시 혈관을 찾는 숙련된 기술이 발달하여 침습적 주사 처치에 어려움을 덜 느끼는 것(염은이, 김미영, 2014)으로 이해되며, 혈액투석실 신규 간호사를 대상으로 동정맥루 천자에 관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한다면 대상자들의 주사 기술능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2. 혈액투석실 간호사의 회복탄력성

혈액투석실 간호사의 회복탄력성은 4점 만점에 평균 2.46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혈액투석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홍인숙(2022)의 연구 결과 평균 2.42점과 비슷하였으나, 응급실 간호사 대상으로 한 황수연과 한지영(2018)의 연구 결과인 평균 2.38점보다는 높게 나타났다. 같은 연구도구를 사용했으나 만점기준이 상이한 선행연구 결과를 4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병원간호사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류정림, 주정숙, 김신희, 2021)의 연구 결과 평균 2.79점, 요양병원 간호사 대상으로 한 현일선과 이소영(2020)의 연구 결과 평균 2.81점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근무 부서에 따른 간호사들의 회복탄력성 특성의 차이가 반영된 것으로 생각되며 특수부서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의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추후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회복탄력성에 관한 문항별 점수를 살펴보면 지지 요인 중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나를 도와줄 가깝고 돈독한 사람이 적어도 하나 있다.’ 평균 3.10점 문항에서 가장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사회적 지지는 직장동료와 가족의 지지가 간호사의 일과 삶의 균형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밝혀진 선행 연구(이솔, 신윤희, 2020)와 혈액투석실 간호사들은 동료의 지지를 상사의 지지보다 높게 인식하고 있으며(하정인, 2023), 본 연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간호사들의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데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에 혈액투석실 간호사는 특수한 근무환경에서 직장동료와의 상호 의존성이 높아 혈액투석 간호과 관련된 다양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기에 동료와 함께 역경을 극복하고 공감을 바탕으로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회복탄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의 근거로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에 영성 요인 중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분명한 해결책이 없을 때에

는, 가끔 신이나 운명이 도와줄 수 있다.’ 문항은 평균 1.86점으로 가장 점수가 낮게 나타났다. 한편 인내 요인 중 ‘과거의 성공들은 내가 새로운 도전과 역경을 다루는 데 자신감을 준다’ 문항은 평균 2.89점, ‘나는 결과에 상관없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 문항은 평균 2.88점으로 영성 요인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혈액투석실 간호사가 역경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영성 요인보다 개인의 내면의 힘을 바탕으로 인내 요인에 더욱 중점을 두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세부적으로 회복탄력성의 하위요인을 살펴보면 지지 요인이 평균 2.91점으로 가장 점수가 높았고 인내 평균 2.60점, 낙관성 평균 2.52점, 강인성 평균 2.31점, 영성 평균 2.02점 요인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혈액투석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홍인숙(2022)의 연구와 응급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황수연, 한지영, 2018; 권소영 등, 2021)의 결과와 일치한다. 회복탄력성은 개발 가능하며 강화시킬 수 있으므로(Jackson et al., 2007), 혈액투석실 간호사의 회복탄력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하위요인별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제공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회복탄력성은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성별, 결혼상태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남성보다 여성이, 기혼자보다 미혼자가 회복탄력성 정도가 높았다. 성별의 경우 본 연구에서 남성 2명, 여성 131명으로 대상자 간의 비율분포 차이로 직접적인 비교 분석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며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 한편 혈액투석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홍인숙(2019)의 연구에서는 결혼상태 부분에서 기혼자의 회복탄력성이 미혼자보다 높았으며, 본 연구 결과에서는 직위와 회복탄력성과의 상관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직위가 높을수록 회복탄력성이 높다는 다수의 선행연구(김미경, 2017; 황수연, 한지영, 2018; 홍인숙, 2019; 류정림 등, 2021) 결과와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직위가 높아질수록 다양한 임상 경험이 축적되어 스트

레스에 대처하는 능력이 향상되기 때문에 회복탄력성 또한 높아지는 것으로 (류정림 등, 2021), 제시되었으므로 추후 반복적인 연구를 통해 상관성을 밝혀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3. 혈액투석실 간호사의 소진

본 연구 대상자의 소진 정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02점으로 나타났다. 같은 연구 도구를 사용하였지만, 응급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클라이언트관련 소진’ 요인만 측정된 선행연구(권소영 등, 2021)의 연구 결과는 5점 만점에 평균 3.18점이었고 본 연구의 ‘클라이언트관련 소진’ 요인의 평균 2.67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응급실 간호사의 경우 환자 및 보호자 관련 대인관계 스트레스 지수가 다른 부서에 비해 높아(윤치근, 이한나, 2003), 혈액투석실 간호사보다 소진 정도가 많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한편 다른 연구 도구를 사용하여 혈액투석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정선애와 박경연(2016)의 연구 결과는 5점 만점으로 환산 시 평균 2.89점이었으며 허영주와 이병숙(2011)의 연구 결과는 평균 2.81점이었다. 같은 연구 도구를 사용하지 않아 직접적인 비교와 검토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본 연구에서의 소진 정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최근 코로나 19 감염병 상황에서 감염관리 업무 부담 증가 및 인력 부족으로 인해(하정인, 2023), 혈액투석실 간호사의 소진이 증가되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소진에 관한 문항별 점수를 살펴보면 개인적 소진 요인 중 ‘얼마나 자주 피곤하다고 느끼십니까?’ 평균 3.80점 문항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냈고 반대로 업무관련 소진 요인인 ‘일이 당신을 좌절하게 합니까?’ 평균 2.50점 문항의 점수는 가장 낮았다. 소진의 하위요인인 개인적 소진 평균 3.27점, 업무관련 소진 평균 3.11점, 클라이언트관련 소진 평균 2.67점 순으로 점수

가 높게 나타났는데 개인적 소진 요인의 경우 개인의 신체·정신적 소진과 관련된 문항으로, 투석 전 물품 준비와 동정맥루 천자 및 투석 후 환경정리 등 반복적으로 강도 높은 신체적 활동으로 근골격계 부담이 많은(류은진, 최소은, 2017), 혈액투석실의 부서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를 경감시키기 위해 간호 인력 및 보조 인력의 적정한 수를 유지하는 병원 차원의 노력과 개인적 소진을 경감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클라이언트관련 요인의 경우 소진 정도의 점수가 가장 낮게 나왔는데 이는 혈액투석 환자가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관심과 애정을 쏟는 간호사와 긍정적인 정서적 교류를 이루면서(염은이, 김미영, 2014), 만성 신장 질환 특성상 오랜 시간 혈액투석실 간호사는 환자와의 관계 속에서 친밀감이 쌓이면서 환자와 관련한 부분에서 느끼는 소진 정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소진 정도는 학력, 임상경력, 투석실 근무경력, 교대 근무 형태, 근무 병원 형태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학력의 경우 석사 이상 학력 소지자가 학사 학력 소지자보다 소진 정도가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학사가 석사 이상의 학력 소지자보다 소진 정도가 높은 선행연구(임민경, 성영희, 정정희, 2017; 황수연, 한지영, 2018; 허소희, 2021)의 결과와는 일치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들은 혈액투석실에 근무하는 간호사로서 학력이 높아질수록 업무와 관련된 책임감이 높아지고 이로 인해 소진 발생 정도가 많아지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임상경력과 투석실 근무경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혈액투석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정선애, 박경연, 2016)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본 연구에서 임상경력은 2년 이상 5년 미만 경력과 투석실 근무경력의 경우 5년 이상 10년 미만에서 소진 정도가 가장 높음을 알 수 있었는데 임정민(2016)의 연구 결과에서 혈액투석실 간호사의 임상경력은 중

간 연차의 경력이 10년 이상 경력보다 소진 정도가 높다는 연구 결과와 맥락을 같이한다. 이러한 결과는 중간 연차 간호사의 경우 실무에서 숙련가로서 성장하며 적극적으로 혈액투석 간호업무에 자신감을 가지고 업무수행을 담당하기에 소진 정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교대 근무 형태에서는 상근직 근무 간호사의 소진 정도가 가장 높음을 알 수 있었는데, 혈액투석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정선애, 박경연, 2016)의 연구 결과와 비교 시 2교대 근무보다 3교대 근무 간호사의 소진 정도가 높은 것은 일치하였으나 상근직 간호사의 소진이 낮게 나온 결과와 관련해서는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하지 않았다. 또한, 교대 근무자가 주간근무자보다 소진 정도가 높다는 선행 연구(강정숙, 임지영, 2015; 임민경 등, 2017)의 결과와도 상이하였다. 그 이유는 일차의료기관인 의원급에서 근무하는 혈액투석실 간호사의 경우 투석간호 제공뿐만 아니라 근무하는 병원 상황에 따라 다양한 행정업무까지 담당하는(홍인숙, 배상현, 조옥희, 2020) 것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또한, 신장클리닉의 경우 대부분 상근직 근무 형태로 이루어져 있으며 간호 인력 및 보조 인력의 지원이 부족한 것과 함께 비간호 업무영역까지 제공해야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근무 병원 형태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혈액투석실 간호사가 신장클리닉 간호사보다 소진 정도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혈액투석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정선애, 박경연, 2016)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이는 투석 간호는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간호업무량에 차이가 있으며 같은 간호행위라도 외래투석 환자보다 입원 및 중환자 투석환자의 혈액투석 치료에 수행되는 소요 시간이 더 긴 것(김민선 등, 2015)과 관련되어진다. 상급종합병원일수록 환자의 중증도가 증가하여 소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요인이 되기에 환자의 중증도를 고려한 적절한 간호 인력 및 보조 인력의 충원을 통해 소진을 경감시키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4. 간호업무수행능력, 회복탄력성이 소진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 결과 간호업무수행능력과 회복탄력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응급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김민성(2016)의 연구 결과와 동일하게 간호업무수행능력이 높을수록 회복탄력성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회복탄력성은 소진과 음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는 선행 연구(강정숙, 임지영, 2015; 임은진, 이윤미, 2017; 박인숙, 2018; 황수연, 한지영, 2018; 박수민, 하윤주, 2022)의 결과와 동일하게 회복탄력성이 높을수록 소진 정도가 낮음을 알 수 있었다. 세부적으로 회복탄력성의 5가지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지지, 인내, 낙관성, 강인성 4가지 요인의 경우 모두 소진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간호업무수행능력을 높여 회복탄력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회복탄력성의 하위요인 중 4가지 요인이 소진과 상관성이 있음을 확인하였으므로 궁극적으로 소진을 감소시키는 방안으로 회복탄력성의 하위요인별 특성화된 프로그램 적용을 통한 소진 감소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혈액투석실 간호사의 회복탄력성은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수이며 회복탄력성이 높을수록 소진 정도가 낮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임정민(2016)과 홍인숙(2022)의 혈액투석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와 강정숙과 임지영(2015)의 임상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와 동일하게 나타난 결과이다. 또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이 소진에 미치는 영향은 학력의 경우 석사 이상, 교대 근무 형태의 경우 상근직 근무가, 근무병원 형태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이 영향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회복탄력성은 어려움이나 역경속에서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갈 수 있는 긍정적인 내면의 힘을 의미하는데 이런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것은 곧 내면의

강인함을 키우는 것이며, 혈액투석실 간호사가 투석간호 업무를 수행하며 발생할 수 있는 소진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혈액투석실 간호사의 소진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회복탄력성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전문성과 특성화된 능력을 갖춘 혈액투석실 간호사를 양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간호업무 수행능력과 회복탄력성이 높은 경력직 혈액투석실 간호사의 근속 근무를 유지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또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온라인상에서 국내 혈액투석실 간호사 133명을 대상으로 편의 추출 모집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가 전국 혈액투석실 간호사를 연구한 결과라고 단정하기에는 연구 결과의 일반화에 주의가 필요하며 추후 혈액투석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반복 연구를 통해 적정 효과크기 및 검정력을 높이는 후속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된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혈액투석실 간호사 관련 선행 연구가 미비하므로 본 연구는 이러한 후속 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혈액투석 환자에게 수준 높은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서 혈액투석실 간호사의 간호업무수행능력과 회복탄력성을 파악하고 소진과의 연관성을 확인하여 간호업무수행능력과 회복탄력성을 높이고 소진을 감소시키는 방안의 근거를 본 연구를 통해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VI.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혈액투석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간호업무수행능력과 회복탄력성이 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여 간호업무수행능력과 회복탄력성을 높여 소진을 감소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 결과 간호업무수행능력은 총점 5점 만점에 평균 3.79점, 회복탄력성은 5점 Likert 형식의 척도로 총점 4점 만점에 평균 2.46점, 소진 정도는 총점 5점 만점에 평균 3.02점이었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업무수행능력의 경우 연령, 임상경력, 직위, 근무 병원 형태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회복탄력성의 경우 성별, 결혼상태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소진의 경우 학력, 임상경력, 투석실 근무경력, 교대 근무 형태, 근무 병원 형태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 혈액투석실 간호사의 간호업무수행능력은 회복탄력성과 양의 상관관계, 회복탄력성은 소진과 음의 상관관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혈액투석실 간호사의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수는 회복탄력성이었으며 모형의 설명력은 38.8%였고 회복탄력성이 높을수록 소진 수준이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학력의 경우 석사 이상, 교대 근무 형태의 경우 상근직 근무, 근무 병원 형태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이 소진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혈액투석 환자에게 수준 높은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 혈액투석실 간호사의 소진을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간호업무수행능력과 회복탄력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과 소진을 감소시키는 방안의 근거의 필요성을 확인했다.

2. 제언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혈액투석실 간호사의 투석 간호업무의 특성을 반영한 간호업무수행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연구 도구가 부족한 실정으로 혈액투석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여 투석 전, 중, 후 간호와 관련된 간호업무수행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특성화된 연구 도구의 개발을 제언한다.

둘째. 본 연구를 통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로 혈액투석실 간호사의 회복탄력성이 높을수록 소진 정도가 낮은 것을 알 수 있었으며 근무 병원 형태에 따라 소진 정도가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으므로 관련된 후속 연구를 제언한다.

참고문헌

- 강정숙, & 임지영. (2015). 임상간호사의 회복탄력성이 직무스트레스와 소진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5(11), 263-273.
- 강종수. (2022). 한국어판 코펜하겐소진척도 (K-CBI) 타당화 연구. *사회복지정책과 실천*, 8, 211-239.
- 고경자. (2019). 종합병원 간호사의 회복탄력성과 직무배태성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대학원].
- 곽소영, 김윤수, 이경주, & 김미영. (2017). 간호사의 간호정보역량, 문제해결 능력 및 업무수행능력. *한국간호교육학회지*, 23(2), 146-155.
- 권소영, 손민서, & 강인순. (2021). 응급실 간호사의 대인관계 스트레스가 소진 및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 *글로벌 건강과 간호*, 11(1), 21-31.
- 권혜경, 김신향, & 박시현. (2017). 한국 간호사의 회복탄력성과 관련된 변인의 메타분석. *임상간호연구*, 23(1), 100-109.
- 김다미. (2017). 혈액투석실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 사회적지지가 감성지능과 정서적 소진에 미치는 영향[석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대학원].
- 김명숙. (2013). 경력개발시스템이 간호사 업무수행능력, 직무만족, 조직몰입,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김문실, 신미자, 김미경, 김정희, 박선미, 우혜주, 정하정, & 함인귀. (2000). 혈액투석 간호업무 분석. *간호행정학회지*, 6(3), 303-317.
- 김미경. (2017). 임상간호사의 스트레스 대처능력과 회복탄력성이 간호업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김미란. (2008). 임상간호사의 간호전문직관, 간호업무수행과 재직의도[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 김미영, & 이해경. (2019). 대학병원간호사의 자기효능감, 업무수행능력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 *한국응용과학기술학회지*, 36(3), 726-736.
- 김민선, 김문실, 김정아, 정은주, 허은화, 홍화정, 신혜선, & 정여원. (2015). 내원유형별 혈액투석 간호업무 표준개발. *임상간호연구*, 21(3), 293-308.
- 김민성. (2016). 응급실 간호사의 회복탄력성과 간호업무 수행능력[석사학위논문, 아주대학교 일반대학원].
- 김부남, 오현숙, & 박용숙. (2011). 간호사의 탄력성과 직무 스트레스 및 직무만족도. *한국직업건강간호학회지*, 20(1), 14-23.
- 김선화, & 박성희. (2016). 간호사 극복력 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 검증. *한국자료분석학회*, 18(4), 2257-2269.
- 김수진, & 김수울. (2022). 지역 응급의료기관 응급실 간호사의 간호업무 수행능력, 자기효능감이 증증도 분류역량에 미치는 영향. *성인간호학회지*, 34(3), 304-312.
- 김수현, & 박희옥. (2020). 종합병원 간호사의 자아탄력성, 간호전문직관 및 공감능력이 임상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간호교육학회지*, 26(2), 101-110.
- 김영미, 전인숙, & 박영미. (2012). 간호사를 위한 혈액투석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13(12), 5839-5848.
- 김영옥. (2002). 병원 일반간호사의 소진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성인간호학회지*, 14(4), 591-601.
- 김유나. (2020). 중환자실 간호사의 의사소통능력 및 조직 의사소통만족도가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김정희, 안혜영, 엄미란, & 이미영. (2010). 응급실 간호사의 소진, 업무수행,

- 전문직 정체성에 관한 연구. *산업간호학회지*, 19(1), 50-59.
- 김희경, 지현순, 류은경, 이현주, 연승은, 전미경, & 김희정. (2005). 간호사의 소진 영향요인. *임상간호연구*, 10(2), 7-18.
- 라명희. (2005). 혈액투석실 간호사의 역할갈등과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류은진, & 최소은. (2017). 혈액투석실 간호사의 감정노동, 공감피로, 직무스트레스가 신체화 증상에 미치는 영향. *한국직업건강간호학회지*, 26(2), 65-73.
- 류정림, 주정숙, & 김신희. (2021). 병원간호사의 임상간호인성이 소진에 미치는 융합적 영향요인: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 중심으로,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22(1), 354-362.
- 문인오, 박숙경, & 정정미. (2013). 임상간호사의 회복탄력성이 직무열의와 소진에 미치는 영향. *간호행정학회지*, 19(4), 525-535.
- 문주희, & 윤숙희. (2019). 요양병원 간호사의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요인. *간호행정학회지*, 25(5), 373-383.
- 박계숙. (2013). 신규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 자아탄력성과 이직의도와의 관계[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임상간호대학원].
- 박미미. (2015). 간호사 극복력 측정도구 개발[박사학위논문, 아주대학교 일반대학원].
- 박봉희. (2005). 혈액투석실의 조직특성, 간호조직문화유형 및 조직성과에 관한연구[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박소정, 강지연, & 이영옥. (2012). 병원간호사의 환자안전문화에 대한 인식과 안전간호활동에 관한 연구. *중환자간호학회지*, 5(1), 44-55.
- 박수민, & 하윤주. (2022). 국가감염병전담병원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 사회적지지, 회복탄력성이 소진에 미치는 영향. *한국웰니스학회지*,

- 174), 75-81.
- 박안나, 정경희, & 김원경. (2016). 간호사의 비판적 사고성향, 학습 관련 자기주도성 및 간호업무수행능력에 관한 연구. *간호행정학회지*, 22(1), 1-10.
- 박의정, & 김영혜. (2013). 혈액투석실 간호사의 실무적응과정에 대한 근거이론적 접근. *간호행정학회지*, 19(1), 128-134.
- 박인숙, (2018). 신규간호사의 감정노동, 회복탄력성 및 직무소진. *한국콘텐츠학회*, 2018(5), 373-374.
- 박점미, & 신나연. (2019). 종합병원 신규 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 회복력, 이직의도간의 관계에 대한 융합 연구. *한국융합학회논문지*, 10(4), 277-284.
- 백윤미, & 김숙영, (2020). 간호사의 업무 강도, 대인관계 갈등과 소진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의 조절 및 매개 효과. *임상간호연구*, 26(3), 275-284.
- 백윤미. (2018). 간호사의 업무 강도, 대인관계 갈등과 소진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의 조절 및 매개 효과[석사학위논문, 을지대학교 임상간호대학원].
- 백현숙, 이경욱, 주은정, 이미영, & 최경숙. (2010).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Connor-Davidson Resilience Scale. *PSYCHIATRY INVESTIGATION*, 7(2), 109-115.
- 변대식, & 염영희, (2009). 임상간호사의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감정노동을 중심으로. *간호행정학회지*, 15(3), 444-454.
- 서미란, & 정경희, (2018). 혈액투석실 간호사의 비판적 사고성향과 임상 의사결정능력이 환자안전역량에 미치는 영향.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8(8), 51-61.

- 서정애, & 이병숙. (2016). 혈액투석실 간호사의 근무환경이 간호업무수행에 미치는 영향: 직무만족 및 임파워먼트의 효과를 중심으로. *간호행정학회지*, 22(2), 178-188.
- 서정애. (2015). 혈액투석실의 간호근무환경이 간호사의 업무수행에 미치는 영향:-직무만족 및 임파워먼트 효과를 중심으로[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대학원].
- 성미향, & 이미영. (2017). 간호사의 셀프리더십, 간호업무수행능력, 직무만족이 직무몰입에 미치는 영향. *임상간호연구*, 23(1), 1-8.
- 송경자, 박승현, 조정숙, 권미경, 박정선, 남승남, 유미,& 김명애. (2006). 일개 대학병원 간호사의 업무수행능력에 관한 연구. *임상간호연구* 12(1), 97-108.
- 송명숙, 강경자, & 이명화. (1998). 신장실 간호사의 직무만족도와 소진경험 정도와의 관계. *성인간호학회지*, 10(1), 32-47.
- 송진숙, & 허수연. (2018). 간호사의 회복탄력성과 소진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과 사회적지지의 조절효과에 관한 연구. *보건사회연구*, 38(4), 544-570.
- 신상춘, & 이병숙. (2001). 임상간호사의 조직몰입과 간호업무수행의 관계. *계명간호과학*, 5(1), 33-44.
- 안혜경, & 강인순. (2008). 임상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 직무만족도 및 이직충동. *한국자료분석학회*, 10(1), 149-167.
- 염은이, & 김미영. (2014). 혈액투석 환자가 경험한 '좋은 간호'. *성인간호학회지*, 26(3), 275-286.
- 유미자, & 김종경. (2016). 종합병원 간호사의 조직특성, 직무만족, 직무배태성 관련 이직의도 모형. *간호행정학회지*, 22(3), 292-302.
- 윤금숙, & 김숙영 (2010). 직무스트레스와 소진이 간호사의 이직의도에 미치는

- 는 영향. *간호행정학회지*, 16(4), 507-516.
- 윤치근, & 이한나 (2003). 임상 간호사의 업무 스트레스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보건통계학회*, 28(2), 95-109.
- 이 솔, & 신윤희. (2020). 간호사의 사회적 지지, 건강 상태, 그것과 일과 삶의 균형. *대한임상건강증진학회*, 20(4), 194-202.
- 이경희, & 이소우. (2005). Resilience(회복력) 개념분석. *대한스트레스학회*, 13(1), 9-18.
- 이은미. (2008). 간호사의 인사고과 도구 개발[박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 이은영, & 강현숙. (2020). 임상간호사의 감정노동과 자아탄력성이 소진에 미치는 영향. *인적자원관리연구*, 27(3), 1-11.
- 이은영. (2021). 수술실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 의사소통능력 및 회복탄력성과 소진과의 관계[석사학위논문, 울산대학교 대학원].
- 이정민, & 염영희. (2013). 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 공감피로 및 공감만족이 소진에 미치는 영향. *간호행정학회지*, 19(5), 689-697.
- 이정숙. (2019). 종합병원 간호사의 회복력과 조직문화가 웰빙에 미치는 융복합적 영향. *디지털융복합연구*, 17(7), 235-244.
- 이희수, 정은숙, 최경아, & 유승오. (2016). 혈액투석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의 특성이 근거기반 혈액투석간호지식과 수행정도에 미치는 영향. *임상간호연구*, 22(2), 225-237.
- 임민경, 성영희, & 정정희. (2017). 수술실 간호사가 지각하는 간호조직문화 유형, 셀프리더십 및 소진 간의 관계. *간호행정학회지*, 23(2), 170-180.
- 임은진, & 이윤미, (2017). 수술실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 회복탄력성, 전문직 정체성이 소진에 미치는 영향. *중환자간호학회지*, 10(1), 31-40.

- 임정민. (2016). 혈액투석실 간호사의 극복력, 전문직 자아개념 및 소진 (Burnout)[석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보건대학원].
- 전경자, & 변성원. (2009). 최근10년간 한국간호사의 소진에 관한 연구 분석. *간호행정학회지*, 15(3), 305-313.
- 정선애, & 박경연. (2016). 혈액투석실 간호사의 언어폭력 경험, 직무 스트레스, 소진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간호행정학회지*, 22(2), 189-198.
- 조미정, & 성미혜. (2018). 응급실 간호사의 역할갈등, 자기효능감, 회복탄력성이 간호업무 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직업건강간호학회지*, 27(1), 59-66.
- 지수빈. (2016). 임상간호사의 업무스트레스와 소진이 간호업무수행에 미치는 영향[석사학위논문, 을지대학교 임상간호대학원].
- 진동찬, 신영신, 김묘정, 강미연, 원은미, & 양기화. (2018).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혈액투석 적정성 평가와 연관된 진료 변화 분석. *대한내과학회지*, 93(2), 194-205.
- 최순성. (2021). 재활서비스와 업무수행능력이 산재노동자의 직업복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박사학위논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테크노인력개발전문대학원].
- 하정인. (2023).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에서 혈액투석실 간호사의 감염관리 직무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가 소진에 미치는 영향[석사학위논문, 신라대학교 일반대학원].
- 허소희. (2021). 상급종합병원 간호사의 COVID-19 스트레스와 소진의 관계 : 사회적 책임의 매개효과[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간호대학원].
- 허영주, & 이병숙. (2011). 인공신장실 간호사의 임파워먼트, 직무스트레스 및 소진의 관계. *계명간호과학*, 15(1), 21-30.

- 허영주. (2008). 인공신장실 간호사의 임파워먼트, 직무스트레스 및 소진의 관계[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대학원].
- 현일선, & 이소영. (2020). 요양병원 간호사의 감정노동, 회복 탄력성이 소진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21(3), 353-359.
- 홍인숙, 배상현, & 조옥희. (2020). 일차의료기관 혈액투석실 간호사의 간호근무환경, 환자안전문화 및 환자안전간호활동의 관계. *가정간호학회지*, 27(3), 250-258.
- 홍인숙. (2019). 혈액투석실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 극복력, 전문직 자아개념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석사학위논문, 공주대학교 대학원].
- 홍인숙. (2022). 혈액투석실 간호사의 전문직 삶의 질 구조모형[박사학위논문, 공주대학교 대학원].
- 황수연, & 한지영. (2018). 응급실 간호사의 폭력경험에 대한 반응, 회복탄력성이 소진에 미치는 영향. *임상간호연구*, 24(3), 303-312.
- 황혜남, & 이윤신. (2021). 신규간호사의 극복력 경험.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1(10), 656-667.
- 대한신장학회. (2021). 2020년우리나라 신대체요법 현황 보고서.
<https://ksn.or.kr/general/about/>
- Connor, K. M., & Davidson, J. R. (2003). Development of a new resilience scale: The Connor-Davidson Resilience Scale(CD-RISC). *Depression and Anxiety*, 18(2), 76-82.
- Gomez, N. J., Castner, D., & Hain, D. (2017). Nephrology nursing scope and standards of practice: Integration into clinical practice. *Nephrology Nursing Journal*, 44(1), 19-26.
- Jackson, D., Firtko, A., & Edenborough, M. (2007). Personal resilience as

a strategy for surviving and thriving in the face of workplace adversity: A literature review. *Journal of advanced nursing*, 60(1), 1-9.

Kristensen, T. S., Borritz, M., Villadsen, E., & Christensen, K. B. (2005).

The Copenhagen Burnout Inventory: A new tool for the assessment of burnout. *Work & stress*, 19(3), 192-207.

Pines, A. M., Aronson, E., & Kafry, D. (1981). Burnout from tedium to personal growth. A Division of MacMillian Publishing Co. Inc.: New York, NY, USA.

ABSTRACT

Impact of Nursing Performance and Resilience on Burnout among Nurses in Hemodialysis Unit.

Kim Yeji

Department of Nursing Science

Graduate School of Nursing

Sungshin University

This is a descriptive study to identify the impacts of nursing performance and resilience on burnout nurses in hemodialysis unit. Data were collected through an online survey from December 2, 2022 to April 26, 2023 using a self-reported structured questionnaire to measure the degree of nursing performance of hemodialysis unit nurses, resilience, and burnout. The participants were 144 staff and charge nurses who worked at least 3 months in the hemodialysis unit of a medical institution in Korea. A total of 133 questionnaires were finally analyzed using the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SPSS) 26.0 program with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Scheffé 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d multiple linear regres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In this study, the mean age of participants was 37.67 ± 8.15 years, with 62 (46.6%) aged 30-39, followed by 40 (30.1%) aged 40-49, 20 (15%) aged 29 or younger, and 11 (8.3%) aged 50 or older. Among the participants, 82 (61.7%) had no religion, 131 (98.5%) were female, 79 (59.4%) were married, and 93 (69.9%) had a bachelor's degree. The mean clinical career was 12.66 ± 7.88 years, with 41 (30.8%) having more than 15 years of career. The mean dialysis career was 6.03 ± 4.99 years, with 37 (27.8%) having less than 2 years of career. 116 (87.2%) were staff nurse position, 67 (50.4%) were 12 hour shift type, and 71 (53.4%) worked at general hospitals. The average burden of arteriovenous fistula puncture was 5.43 ± 2.09 points.

2. In this study, the mean score of nursing performance was 3.79 ± 0.47 out of 5, the mean score of resilience was 2.46 ± 0.57 out of 4 on a 5-point Likert-type scale, and the mean score of burnout was 3.02 ± 0.60 out of 5.

3. In the case of nursing performance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age ($F=4.63$, $p=.004$), clinical career ($F=2.79$, $p=.029$), position ($F=4.25$, $p=.041$), and type of hospital ($F=4.89$, $p=.003$). For resilience,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by sex ($F=7.26$, $p=.008$) and marital status ($F=5.17$, $p=.025$). For burnout,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by education ($F=3.90$, $p=.023$), clinical career ($F=2.76$, $p=.031$), dialysis career ($F=2.80$, $p=.029$), shift type

($F=7.58$, $p=.001$), and hospital type ($F=4.27$, $p=.007$).

4. Nursing performance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resilience ($r=.52$, $p<.001$) and resilience was negatively correlated with burnout ($r=-.37$, $p<.001$), which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5. The results of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the explanatory power of variables for burnout in this sample was 38.8%. The effect of resilience on burnout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beta=-.25$, $p=.011$), and the higher the resilience, the lower the level of burnout. Among the general characteristics, having a master's degree or higher ($\beta=.20$, $p=.047$), working day time only ($\beta=.34$, $p<.001$), and working in a tertiary hospital ($\beta=.34$, $p<.001$)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as influential factors on burnout.

This study aimed to determine the effects of nursing performance and resilience on burnout among hemodialysis unit nurses. The results showed that nursing performance was positively related to resilience and resilience was negatively related to burnout in nurses working at the hemodialysis unit. In conclusion, the effect of resilience on burnout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indicating that the higher the level of resilience, the lower the level of burnout. Therefore, this study can provide a basis for the needs to develop programs to improve nursing performance and resilience in order to reduce the burnout of hemodialysis nurses in addition to provide high-quality nursing care for hemodialysis patients.

부록 1. 설명문 및 동의서

연구 설명문

연구과제명: 혈액투석실 간호사의 간호업무수행능력과 회복탄력성이 소진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는 혈액투석실 간호사의 간호업무수행능력과 회복탄력성이 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로 성신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노인전문간호사과정) 4학기 김예지의 석사학위논문에 대한 연구입니다. 귀하는 본 연구에 참여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설명서와 동의서를 신중하게 읽어보셔야 합니다. 이 연구가 왜 수행되며, 무엇을 수행하는지 귀하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연구를 수행하는 김예지 연구담당자가 귀하에게 이 연구에 관해 설명해 줄 것입니다. 이 연구는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히신 분에 한하여 수행될 것입니다. 다음 내용을 신중히 읽어보신 후 참여 의사를 밝혀주시길 바라며, 만일 어떠한 질문이 있다면 연구담당자가 자세하게 설명해 줄 것입니다.

귀하의 서명은 귀하가 본 연구에 대해 그리고 위험성에 관해 설명을 들었음을 의미하며, 이 문서에 대한 귀하의 서명은 귀하께서 자신이 본 연구에 참여를 원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만성질환으로 합병증과 평균 수명 연장으로 혈액투석 환자 수 증가로 이어져 전문성을 갖춘 혈액투석실 간호사에 대한 필요성 및 요구도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간호사들은 직업 특성상 다양한 건강 문제를 가진 사람들과 지속적으로 접촉하기에 소진에 쉽게 노출되어 있으며 간호사들이 간호업무수행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주요한 건강 문제입니다.

회복탄력성은 역경에 긍정적으로 적응하는 개인의 능력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배경 속에 본 연구의 목적은 혈액투석실 간호사의 간호업무수행능력과 회복탄력성이 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혈액투석실 간호사를 위한 간호업무수행능력 향상과 회복탄력성을 높이며 간호사 소진 감소 프로그램의 적용 필요성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본 연구는 연구담당자의 석사 학위 논문 연구의 목적으로 시행됩니다.

2. 연구 참여 대상

본 연구에는 국내 의료기관에서 혈액투석 간호를 제공하는 혈액투석실에서 근무 중인 일반 간호사, 책임 간호사로 혈액투석실에서 근무하며 최소 3개월 이상 경력이 있으며, 본 연구의 목적에 대해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참여를 동의한 자를 대상으로 하며 전체 대상자 수는 144명입니다. 단, 혈액투석실에서 근무하지 않는 간호사, 혈액투석실 근무경력 3개월 미만 간호사, 혈액투석실에서 혈액투석 간호를 제공하지 않는 수간호사는 본 연구에서 제외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3. 연구 방법

만일 귀하가 참여 의사를 밝혀 주시면 다음과 같은 과정이 진행될 것입니다. 익명성이 보장된 온라인 설문조사 예정으로 설문지 작성은 온라인으로 시행되며, 귀하께서 편하신 장소에서 조사에 응답하시면 됩니다. 설문의 항목은 일반적 특성(11개 항목), 간호업무수행(30문항), 회복탄력성(25문항), 소진(19문항)으로, 총 설문지 작성시간은 대략 15분 ~20분 예상되며 단 1회 참여의 설문시간이 소요됩니다.

4. 연구 참여 기간

귀하는 본 연구를 위해 단 1회(온라인 설문조사)로 연구 참여가 완료됩니다.

5. 자발적 연구 참여와 중지

귀하는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을 자유가 있으며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아도 귀하에게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본 연구는 연구동의서에 전자서명으로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에 동의한 대상자에 한해 온라인 설문지 작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귀하는 언제라도 연구 과정에서 원치 않으면 언제든지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무기명 온라인 설문조사로 동의철회의사를 표명한 참여자의 전자자료를 선택적으로 식별할 수 없어 중도탈락 혹은 동의를 철회한 연구대상자의 답변을 선별 및 폐기하는 것은 불가능하여, 동의 철회 시에도 연구대상자의 전자자료는 연구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수집된 전자자료는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15조 4.2항에 따라 3년 보관한 후 전자자료를 영구 삭제 예정입니다.

6. 부작용 또는 위험과 불편함

귀하가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직접적인 위험은 없지만, 설문지 작성에 따른 피로감 및 불편감 등이 예상될 수 있습니다. 피로감 및 불편감 발생 시 설문 중간에 휴식을 취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설문을 자발적 의사에 따라 중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외의 연구 참여 도중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나 위험에 대해 인지할 경우 연구담당자에게 즉시 문의해 주십시오.

7. 연구 참여에 따른 보상 또는 비용

귀하가 연구 참여시 연구 참여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소정의 답례품(백화점 모바일 상품권 5000원권)을 제공 예정입니다.

8. 연구 참여에 따른 이익

귀하가 이 연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직접적인 이익은 없으며, 답례품(백화점 모바일 상품권 5000원권) 이외에는 어떠한 금전적 보상도 없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제공하는 정보는 혈액투석실 간호사의 간호업무수행능력과 회복탄력성이 소진과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9. 개인정보와 비밀보장

본 연구의 참여로 귀하에게서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의 개인(민감) 정보 성별, 연령, 종교, 결혼상태, 최종학력, 근무경력, 현재 직위, 근무형태, 근무병원유형, 연락처를 수집하고자 합니다.

수집된 연구 관련 전자자료는 3년간 사용되며 개인정보 보호 및 비밀보장을 위해 본 연구에 등록된 연구담당자에게만 접근이 허용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관리 예정으로 보안 유지하여 적절하게 보관 예정입니다. 연구정보가 포함된 PC의 경우 암호 설정하여 관리할 것입니다. 수집된 전자자료를 보관하는 문서도 비밀번호 설정 후 보관 예정이며, 연구를 통해 얻은 모든 개인정보의 비밀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 연구에서 얻어진 개인정보는 익명을 원칙으로 철저히 비밀 보장되며, 학술적인 통계 목적으로만 사용하며 익명화되어 통계 처리될 예정입니다. 또한 성신여자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는 연구대상자의 비밀보장을 침해하지 않고 관련 규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본 연구의 실시 절차와 자료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연구 관련 자료를 직접 열람하거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본 동의서에 서명하는 것은,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알고 있었으며 이를 허용한다는 의사로 간주될 것입니다. 연구 종료 후 수집된 전자자료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4.2항에 따라 연구종료 후 3년간 보관됩니다. 보관기간이 끝나면 전자자료를 영구 삭제 될 것입니다. 연락처는 답례품 지급 완료할 때까지 보유 후 즉시 영구 삭제 예정입니다.

10. 연구 문의

본 연구에 대해 질문이 있거나 연구 중간에 문제가 생길 시 다음 연구 담당자에게 언제든지 연락하십시오.

연구 담당자: _____김예지_____ 전화번호: _____ 010-_____

만일 어느 때라도 연구대상자로서 귀하의 권리에 대한 질문이 있다면 성신여자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 연락하십시오.

성신여자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전화번호: 02-920-7760

뒤로

다음

양식 지우기

Google Forms를 통해 비밀번호를 제출하지 마세요.

동 의 서

연구제목: 혈액투석실 간호사의 간호업무수행능력과 회복탄력성이 소진에 미치는 영향

1. 나는 본 연구의 설명문을 읽었으며 연구담당자와 이에 대하여 의논하였습니다.
2. 나는 위험과 이득에 관하여 들었으며 나의 질문에 만족할 만한 답변을 얻었습니다.
3. 나는 이 연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동의합니다.
4. 나는 이 연구에서 얻어진 나에 대한 정보를 현행 법률과 성신여자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구자가 수집하고 처리하는 데 동의합니다.
5. 나는 연구담당자가 연구를 진행하거나 결과 관리를 하는 경우와 성신여자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가 실태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비밀로 유지되는 나의 개인 신상 정보를 직접적으로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6. 나는 이 연구에 사용된 모든 설문지 항목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로서, 원칙적으로 원저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며, 이를 오프라인과 인터넷 사이트에서 무단 복제, 배포하는 경우에 저작권법 제97조 5에 의한 저작권침해에 해당함을 알고 있습니다.
7. 나는 언제라도 이 연구의 참여를 철회할 수 있고 이러한 결정이 나에게 어떠한 해도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2항, 시행령 제17조 제2항, 시행규칙 제4조(‘17.10.19. 시행)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예정입니다. (제 3자에게 개인정보 제공하지 않음)

A.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하여 본 연구의 진행 및 결과 분석 시 필요한 일반적 특성과 관련된 자료와 연구 참여 답례품 지급(백화점 모바일 상품권 5000원권)을 위한 연락처를 수집하고자 합니다.

B.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귀하의 개인(민감)정보 성별, 연령, 종교, 결혼상태, 최종학력, 근무경력, 현재 직위, 근무형태, 근무병원유형, 연락처를 수집하고자 합니다.

C.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귀하의 개인(민감)정보는 연구를 위해 연구 종료 후 3년간 사용되며 수집된 개인(민감)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적절히 관리됩니다. 연락처는 답례품 지급 완료할 때까지 보유 후 즉시 연구 삭제 예정입니다.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귀하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본 연구에 참여할 것을 동의하십니까?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 귀하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본 연구에 참여할 것을 동의하십니까?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뒤로

다음

양식 지우기

부록 2. 설문지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본 온라인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혈액투석실 간호사의 간호업무수행능력과 회복탄력성이 소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성신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노인전문간호사 석사과정 학생입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혈액투석실 간호사의 간호업무수행능력과 회복탄력성이 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혈액투석실 간호사를 위한 간호업무수행능력 향상과 회복탄력성을 높이며 간호사 소진 감소 프로그램의 적용 필요성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본 설문지의 작성 시간은 약 15분에서 20분 정도 소요되며, 참여방법은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으로 설문 문항을 읽고 해당하는 항목에 응답하며, 응답한 내용은 익명으로 처리되어 본 연구목적으로만 사용예정이며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개인정보는 절대 비밀이 보장되고 귀하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설문지를 작성하는 도중에 원치 않으면 언제든지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응답은 본 연구를 위한 매우 소중한 자료로 사용될 것이오니 솔직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연구와 관련한 문의 사항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도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소속 : 성신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연구 책임자 지도교수 : 임 경 춘

연구 담당자 성명 : 김 예 지

연락처 : 010-*****

이메일 : 220216022@sungshin.ac.kr

1. 다음은 일반적 특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란에 V표 또는 직접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 1) 성별 : ① 여성() ② 남성()
- 2) 연령 : 만()세
- 3) 종교 : ① 유() ② 무()
- 4) 결혼상태 : ① 미혼 ② 기혼 ③ 이혼 ④ 동거 ⑤ 사별 ⑥ 기타
- 5) 최종학력 : ① 전문학사() ② 학사() ③ 석사과정(전문간호사과정)()
④ 석사과정(일반과정)() ⑤ 석사() ⑥ 박사과정() ⑦박사()
- 6) 간호사 총 근무경력 : _____년 _____개월
- 7) 현부서 (혈액투석실) 경력 : _____년 _____개월
- 8) 현재 직위 : ① 일반 간호사() ② 책임 간호사() ③ 수간호사 이상()
- 9) 근무 형태 : ① 2교대 근무() ② 3교대 근무() ③ 상근직()
- 10) 근무 병원 유형 : ① 신장클리닉() ② 병원()
③ 종합병원() ④ 상급종합병원()

11) 다음은 귀하께서 경험한 동정맥루 천자 시 부담감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귀하가 느꼈던 정도에 V 표시 해주십시오.



2. 다음은 혈액투석실 간호업무수행에 관한 문항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V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매우 못 한다	잘 못 한다	보 통 이 다	잘 한 다	매우 잘 한 다
1	호흡측정, 기도확보, 산소공급과 관련한 간호를 적절하게 수행한다.					
2	경구, 비경구영양을 수행할 수 있으며, 영양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한다.					
3	배액간호의 목적과 내용을 정확히 알고 수행한다.					
4	배변 및 배뇨 관리를 적절하게 수행한다.					
5	혈액투석준비를 정확하게 하고 안전하게 수행한다.					
6	혈액투석의 유지 및 관찰을 정확하게 수행한다.					
7	혈액투석 후 마무리를 정확하게 수행한다.					
8	5 right를 준수하여 정확한 투약을 수행한다.					
9	정맥, 근육, 피하, 피내 주사의 목적을 알고 정확히 주사하며, 부작용에 적절하게 대처한다.					
10	검사예약 및 검사에 따른 설명을 적절하게 수행한다.					
11	검사 준비 및 검체 채취를 정확하게 수행한다.					
12	침습, 비침습적 검사시 환자 관찰을 정확하게 수행한다.					
13	각종 라인 및 응급 물품 관리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행한다.					
14	환자 상태 측정을 통한 위기 사정을 명확하게 한다.					
15	응급간호 관련 업무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수행한다.					

	문항	매우 못 한다	잘 못 한다	보 통 이 다	잘 한 다	매우 잘 한 다
16	통증, 수면 및 휴식을 위한 간호를 적절하게 수행한다.					
17	욕창 및 상처관리를 철저하게 수행한다.					
18	대상자에게 적절한 정서적 지지를 한다.					
19	감염관리지침에 따른 감염 예방관리를 철저하게 수행한다.					
20	안전관리를 지침에 따른 사고예방관리를 철저하게 수행한다.					
21	환의 교환 및 침상관리를 적절하게 수행한다.					
22	환자에게 알맞은 건강 교육 및 상담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다.					
23	의료진과 업무협조를 원활하고 협조적으로 수행한다.					
24	간호직원 간 업무협조를 원활하고 협조적으로 수행한다.					
25	타부서간 정보공유 및 업무협조를 원활하게 수행한다.					
26	영적 지지와 관련된 간호를 관심있게 수행한다.					
27	간호정보 및 문서관리를 적절하고, 정확하게 수행한다.					
28	약품, 소모품, 비품 및 의료기기 관리를 적절하게 수행한다.					
29	환자의 이동 및 이송업무를 안전하게 지원한다.					
30	투석실 환경 관리 및 시설을 관리 업무를 청결하고 안전하게 수행한다.					

출처 :

서정애. (2015). 혈액투석실의 간호근무환경이 간호사의 업무수행에 미치는 영향:-직무만족 및 임파워먼트 효과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대학원].

4. 다음은 소진에 관한 문항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V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얼마나 자주 피곤하다고 느끼십니까?					
2	얼마나 자주 육체적으로 지치십니까?					
3	얼마나 자주 정서적으로 지치십니까?					
4	얼마나 자주 '더 이상 못 참겠어'라고 생각하십니까?					
5	얼마나 자주 녹초가 되었다고 느끼십 니까?					
6	얼마나 자주 병에 걸릴 정도로 허약 해졌다고 느끼십니까?					
7	일이 당신을 정서적으로 지치게 합니 까?					
8	일 때문에 녹초가 된 기분입니까?					
9	일이 당신을 좌절하게 합니까?					
10	근무를 마칠 때쯤이면 지쳤다고 느끼 십니까?					
11	아침에 출근할 생각을 하면 지치십니 까?					
12	근무시간 내내 피곤하다고 느끼십니 까?					
13	여가시간에 가족과 친구를 위한 에너 지가 충분합니까?					
14	클라이언트와 일하기가 힘듭니까?					
15	클라이언트와 일하면서 좌절감을 느 끼십니까?					
16	클라이언트와 일하기에 에너지가 고 갈 됩니까?					
17	클라이언트에게 얻는 것보다 잃는 것 이 많다고 느끼십니까?					
18	클라이언트와 일하는 데 지쳤습니까?					
19	얼마나 더 클라이언트와 일할 수 있 을지 회의감이 드십니까?					

출처 :

강종수. (2022). 한국어판 코펜하겐소진척도 (K-CBI) 타당화 연구. 사회복지정책과 실천, 8, 211-239.

부록 3. 도구 사용 승인 자료

1) 간호업무수행능력 도구

☆ RE: 혈액투석실 간호사 간호업무수행 연구도구 승인 관련하여 메일 보냅니다. ☞ 2022-11-07 (월) 18:22

보낸사람 (N) 서경애 (nalng9@naver.com)
받는사람 김예지 (redacted@naver.com)

제 연구 도구는 사용하셔도 됩니다.
좋은 논문 쓰시기 바랍니다.

2) 회복탄력성 도구(RISC-25)

Jonathan Davidson, M.D. 11월 2일 (수) 오전 3:37 (11일 전) ☆ ↶ ☰
나의게 → 영어 > 한국어 > 매일 번역 영어 번역 안함 x

Dear Yeji:

Thank you for sending payment. Please find attached the Korean RISC-25 and related materials. Can you kindly return the signed agreement at our convenience?

Wishing you the best of success,

Jonathan Davidson

From: 김예지 <220216022@sungshin.ac.kr>
Sent: Sunday, October 30, 2022 8:14 AM
To: Jonathan Davidson, M.D. <jonathan.davidson@duke.edu>
Subject: Re: Inquiries about using CD-RISC.

3) 소진 도구(한국어판 코펜하겐 소진 척도)

'코펜하겐소진척도 연구 도구 승인' 관련 문의 메일 보냅니다.

강종수 <nomu119@naver.com> 2022년 10월 18일 오후 11:47
받는사람: 김예지 <220216022@sungshin.ac.kr>

출처만 표시하시면 자유로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문항 등은 그 논문 참고하시면 됩니다. 좋은 연구 하시기 바랍니다.

Dear Yeji:

Thank you for your interest in the Connor-Davidson Resilience Scale (CD-RISC). We are pleased to grant permission for use of the Korean CD-RISC-25 in the project you have described under the following terms of agreement:

1. You agree (i) not to use the CD-RISC for any commercial purpose unless permission has been granted, or (ii) in research or other work performed for a third party, or (iii) provide the scale to a third party without permission. If other colleagues or off-site collaborators are involved with your project, their use of the scale is restricted to the project described, and the signatory of this agreement is responsible for ensuring that all other parties adhere to the terms of this agreement.
2. You may use the CD-RISC in written form, by telephone, or in **secure electronic format whereby the scale is protected from copying, downloading, alteration, repeated use, unauthorized distribution or search engine indexing**. In all use of the CD-RISC, including electronic versions, **the full copyright and terms of use statement must appear with the scale**. The scale should neither be distributed as an email attachment, nor appear on social media, nor in any form where it is accessible to the public and should be removed from electronic and other sites once the activity or project has been completed. The RISC can only be made accessible in electronic form after subjects have logged in through a link, password or unique personal identifier.
3. Further information on the CD-RISC can be found at the www.cd-risc.com website. The scale's content may not be modified, although in some circumstances the formatting may be adapted with permission of either Dr. Connor or Dr. Davidson. If you wish to create a non-English language translation or culturally modified version of the CD-RISC, please let us know and we will provide details of the standard procedures.
4. Three forms of the scale exist: the original 25 item version and two shorter versions of 10 and 2 items respectively. When using the CD-RISC 25, CD-RISC 10 or CD-RISC 2, whether in English or other language, please include the full copyright statement and use restrictions as it appears on the scale.
5. A **student-rate** fee of \$ 33 US is payable to Jonathan Davidson at 2434 Racquet Club Drive, Seabrook Island, SC 29455, USA either by PayPal (www.paypal.com, account mail@cd-risc.com), cheque or bank wire transfer (in US \$\$). Money orders are not accepted.
6. Complete and return this form via email to mail@cd-risc.com.
7. In any publication or report resulting from use of the CD-RISC, you do not publish or partially reproduce items from the CD-RISC without first securing permission from the authors.

If you agree to the terms of this agreement, please email a signed copy to the above email address. Upon receipt of payment and the signed agreement, we will email a copy of the scale.

For questions regarding use of the CD-RISC, please contact Jonathan Davidson at mail@cd-risc.com. We wish you well in pursuing your goals.

Sincerely yours,

Jonathan R. T. Davidson, M.D.

Agreed to by:

Kim Ye Ji Kim ye ji 2022.11.01
Signature (printed) Date

Effect of Hemodialysis Nurses' Nursing Performance and Resilience on Burnout.

Title

Sungshin university
Organization

부록 4. IRB 승인 자료

심의 신청서

접수번호	2022-0079-002	승인번호	SSWUIRB-2022-058
연구제목	혈액투석실 간호사의 간호업무수행능력과 회복탄력성이 소진에 미치는 영향		
	Effect of Hemodialysis Nurses' Nursing Performance and Resilience on Burnout.		
진행상태	심의완료	신청일	2022-12-01

▶ 심의 정보

심의대상	신규과제 (재심의)		
심의일	2022-12-01	심의방법	신속심의

▶ 심의 결과

심의결과	승인
동의 획득 면제 가능 여부	해당 없음
연구의 위험 수준	Level I 최소위험
지속심의(중간보고) 주기	해당없음
승인유효일	2023-07-31
수정 및 확인 요청사항	수정요청사항이 반영된 것을 확인하여 연구계획을 승인합니다.
권고 사항	
동의서	
공고문	